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채 규 만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양육불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위 지 희

양육불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채 규 만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위 지 희

인 준 서

위지희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양육불안에 관한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자료 수집을 위한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문항 수집을 위한 예비연구에서는 89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경험 연구를 통해 문항을 추출하였고, 기존 양육관련 연구와 척도를 토대로 양육불안에 관한 척도들을 개발하였다. 양육의 결정 요인과 불안 요인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부모 효능감, 애착, 완벽주의, 부모자녀 동일체감, 사회적 지지를 양육불안의 요인들로 구성하였다. 연구자가 개발한 총 82개의 예비 문항에 대한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 평정을 통해 총 60문항의 예비 척도를 구성하였다.

연구 1에서는 수집된 예비 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 분석 결과, 5요인으로 나타났다. 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평정을 통해 일부 문항을 삭제하였다. 각 요인을 부모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6문항), 자녀와의 애착으로 인한 불안(5문항), 자녀에 대한 염려(5문항),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4문항),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6문항)로 명명하였고, 요인간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문항을 삭제한 결과 최종 26문항이 선정되었다.

연구 2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묶인 양육불안 척도의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공인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내적 일치도와 요인별 문항간 상관관계를 통해 살펴본 결과, 양육불안 척도는 만족할 만한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개발된 양육불안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양육불안과 양육효능감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양육불안의 하위요인은 양육 효능감의 인지적 차원인 부모 역할 효능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양육 효능감의 정서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좌절 및 불안감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양육불안과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양육불안과 양육행동간의 관계에서는 애정적 태도, 자율적 태도와는 부적 상관을,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양육불안과 우울,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육불안은 어머니의 우울 및 불안과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정신장애로 진단을 받은 어머니와 정상 아동 어머니간의 양육불안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양육불안 척도는 적절한 수준의 공인 타당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양육불안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양육불안은 거부적 태도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는 어머니가 양육을 하면서 느끼는 불안을 다양한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여 다각도에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어머니가 현재 양육시에 불안해하는 영역을 좀 더 다양하게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어느 영역으로 인한 불안감이 높은지에 따라 그에 따른 치료 방안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동 상담 및 치료 현장에서 아동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불안을 분석하여 양육불안 감소를 위한 노력을 통해서 부모 자녀관계를 개선해나가고, 상담 전후에 이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상담을 효과를 측정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 및 자녀 양육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양육불안, 양육 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양육행동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이론적 배경	8
1) 양육과 관련된 요인	8
2) 불안의 요인	18
3) 양육불안의 정의	24
4) 양육불안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27
5) 불안 척도 유형과 문제점	29
6) 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2
(1) 완벽주의와 양육불안	32
(2) 사회문화적 특성과 양육불안	38
(3) 애착과 양육불안	43
(4) 양육효능감과 양육불안	46
(5) 사회적 지지와 양육불안	48
7) 한국형 양육불안척도 개발의 필요성	50
3. 연구 문제 및 가설	52
II. 예비연구 : 양육불안 문항 개발	54
1. 연구 절차	54
1) 경험적 접근을 통한 문항 수집	54
2) 이론적 접근을 통한 문항 개발	54
2. 연구 대상	56
3. 분석 방법 및 결과	56

III. 연구 1 양육불안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58
1. 연구 절차	58
2. 연구 대상	59
3. 분석 방법	61
4. 연구 결과	61
IV. 연구 2 양육불안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화 연구	71
1. 연구 대상	71
2. 측정 도구	74
3. 분석 방법	77
4. 연구 결과	78
1) 양육불안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78
2) 양육불안척도의 신뢰도	79
3) 양육불안 척도 하위요인간 상관	80
4) 양육불안과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	81
5) 자녀의 정신장애 진단 유무에 따른 양육불안의 차이	84
6) 양육불안에 대한 어머니 반응 분석 차이	85
7) 양육불안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88
V. 논의	93
1. 결론 및 논의	93
2. 제한점 및 의의	105

참 고 문 헌	109
영문초록	131
부록	134

표 목차

표 1. 양육 관련 연구의 구성 요인	13
표 2. 양육 관련 척도의 구성 요인	15
표 3. 불안 관련 연구 및 관련 척도의 구성 요인	22
표 4. 연구 1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59
표 5. 양육불안 척도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62
표 6. 양육불안 척도 고유값 및 평행선 분석	62
표 7.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64
표 8. 양육불안척도 최종 문항 내용 및 요인 부하량	66
표 9. 연구 2 대상자 자녀의 일반적 특성	71
표 10. 연구 2 대상자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73
표 11. 양육불안 척도의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79
표 12. 양육불안 척도의 신뢰도, 평균 및 표준편차	80
표 13. 양육불안 척도의 하위 요인간 상관	80
표 14. 양육불안과 양육 효능감간의 상관관계	82
표 15. 양육불안과 양육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	82
표 16. 양육불안과 양육태도간의 상관관계	83
표 17. 양육불안과 우울, 불안간의 상관관계	84
표 18. 자녀의 정신장애 진단 유무에 따른 양육불안의 차이 검증	85
표 19. 자녀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 양육불안의 차이 검증	86
표 20. 취업 유무에 따른 양육불안차이 검증	87

표 21. 어머니의 상담 및 치료 유무에 따른 양육불안차이 검증	87
표 22. 애정적 태도에 대한 양육불안의 중다회귀분석	88
표 23. 거부적 태도에 대한 양육불안의 중다회귀분석	89
표 24. 자율적 태도에 대한 양육불안의 중다회귀분석	90
표 25. 통제적 태도에 대한 양육불안의 중다회귀분석	91

그림 목차

그림 1. 양육불안 모형	26
그림 2. <스크리 도표> 양육불안 척도 고유값 및 평행선 분석 고유값	6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의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 핵가족화, 출생률 감소, 여성의 사회 진출 등의 다양한 사회적 변화는 육아 문화와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세기 후반 특히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구 문화와 서구식 대중 교육이 급격히 확산된 결과, 현재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의 변화는 전반적인 가치체계가 전통적인 유형에서 근대적인 유형으로 바뀌는 과도기에 있으며, 동양적인 가치와 서구적인 가치가 동시에 혼재하여 있다(김규원, 1995; 한남제, 1994). 서구의 부모들과 한국의 부모들의 가장 큰 특징을 살펴보면, 높은 자녀 교육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구의 가치 체계의 유입과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요즘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있어 서구적인 가치 체계의 영향을 받아 더욱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하고자하는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제는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이 자녀의 학업 뿐 아니라 자녀의 대인관계, 인성, 자아존중감 향상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고 이에 따른 양육 태도의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요즈음 부모 및 아동 상담 장면에서도 보면, 자녀에게 심각한 장애나 문제가 있다기보다 아이의 성향, 기질을 알고 아이를 더 잘 이해하며 아이의 기질에 맞게 양육을 하기 위해 혹은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서 상담을 받으러 왔다는 부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예전보다 증가하고 있는 부모 교육을 다룬 대중 매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오늘날 한국 부모들은 과거의 부모들에 비해 자녀 양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방송, 육아

서적, 부모 교육 세미나, 인터넷 혹은 아동 상담 전문가를 통한 부모 양육 상담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대한 양의 부모양육에 대한 정보들은 젊은 부모들에게 매우 많은 양육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과 불안감도 야기하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가 핵가족의 증가로 인해 친인척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자녀를 키워야 하는 어머니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강박 관념과 유교문화의 가부장적 가족 구조가 어머니에게 지나친 역할을 부여한 결과라고 여겨진다(최순자, 심공창지, 이광형, 2006).

요즘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양육태도 및 양육방식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양육에 대한 효능감이 부족하여 더욱 양육에 대해 불안해하고 이로 말미암아 다양한 인터넷 정보, 육아 도서, 아동 심리 상담소 및 정신과를 내원하여 상담을 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상담소와 소아 정신과를 내원하면서도 이면에는 여전히 불안감과 불신감을 가지면서 양육 전문가의 말을 신뢰하지 못한 채 또 다른 답을 구하려 다른 전문가를 찾아다닌다. 또한 자신만의 뚜렷한 양육기준이 부재한 채 지나치게 매체에 의존하고 이를 맹신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자녀의 성향과 기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문가의 조언이나 심지어 주변 비전문가들의 조언을 맹목적으로 의존하고 수용하며 이를 자신의 자녀에게 적용하는 폐해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아동 심리 상담소와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는 부모들에게서 관찰되는 과도하게 의존적인 모습 속에 부모의 불안이라는 정서가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육아 불안구조의 국제 비교 연구(최순자 외, 2006)에서 한국, 일본, 대만의 어머니의 자녀 양육의 의식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어느 연령에서나 서울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자녀 양육이 힘들다고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세~3세의 자녀를

가진 서울 거주 어머니에서 자녀 양육의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에서도 추측을 해볼 수 있다.

한국의 부모 자녀 관계는 서구의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성을 강조하는 인간관계와는 달리, 부모의 자식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더욱 친밀하고 결속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식을 분신처럼 생각하는 부모 자녀 동일체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현정환, 2007). 한국 전통사회에서 부모는 어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사랑과 헌신으로 자녀를 돌본다. 개인주의를 특성으로 하는 서구 사회와 달리 한국 부모 자녀관계에서의 친밀감과 결속력은 자녀가 장성할 때가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울타리를 제공받음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는 박영신, 김의철(2000)의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이 초등학생,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자기 효능감에 의미있는 효과가 있다고 나타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아 분화 수준은 신체화, 강박증, 대인 예민, 우울, 불안, 적대감, 편집 등의 정신건강과 높은 부적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제석봉, 1989)를 고려해 볼 때, 부모 자녀간의 응집력이 지나쳐서 부모가 자신의 원부모와 분리화되지 못하고 낮은 자아 분화 수준을 가질 경우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사회적 적응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Parker(1979)는 부모의 돌봄 부족 및 어머니의 과잉보호가 불안 장애 및 우울 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과잉보호의 결정적 요소는 부모, 특히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어머니 자신의 불안감과 불안정감 때문에 아이를 과잉보호하게 되고 자녀에게 더 이상 자유로운 활동 공간을 주지 않는다. 또한 과보호적 양육 행동을 하는 부모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존중감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신뢰나 존중감도 부족하여 자녀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한 탓에 자녀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김춘경, 2000). 고인숙(1998)은 어머니의 특성불안이 높을수록 아동의 내현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강영미(2004)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의 특성불안이 높을수록 거부적 양육태도를 취하며 애정적이지 못하며 자율적이지 못한 양육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부모의 양육불안은 자녀의 양육행동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

본래 개인이 부모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완벽하게 높은 기준으로 아이를 대하고 아이가 완벽하기를 바라며, 자신 또한 완벽하게 자녀를 양육하고자 애쓰는 부모들의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치 자녀의 삶이 부모 자신의 삶처럼 혹은 자녀를 부모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며 양육에 과도하게 몰입을 하는 부모들의 심리적인 특성과 원인은 무엇인지 의문이다. 이는 부모의 불안 특성이 원래 높아서인지, 양육이라는 특별한 역할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부모 자녀 관계의 특성인 부모 자녀 동일체감으로 인해서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양육에 대한 정보의 범람과 사회 문화적인 변화 속에서 어떠한 것을 취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적인 문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어머니의 특성불안이 부모의 양육행동, 자녀의 우울·불안, 자녀의 문제행동,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들을 주로 살펴보았다(강영미, 2004; 김우경, 2012; 신혜린, 2012; 양정하, 2010; 이경숙, 1997). 또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분리 불안과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소연주, 2001; 신민경, 2003; 최은아, 2011). 그러나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는 부모의 자녀 양육이라는 특수한 불안을 다루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불안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초래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다. 양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불안 척도들은 불

안의 인지, 정서, 신체적인 요인들을 기반으로 개인의 특성 불안을 반영하는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양육불안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양육불안을 측정하는 척도는 미비하다.

또한 기존에는 부모가 양육 상황에서 경험하는 심리적인 불편감을 양육 스트레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여 연구가 되어 왔다. 개인과 개인이 처한 환경과의 관계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의 개념을 적용하여 Abidin(1990)은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를 아동의 특성, 부모의 특성, 그리고 부모의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상황적 변인들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인간의 신체와 정신의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인 적대감, 불안, 우울 등 다양한 정신 신체적 질환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유진, 2006). 그 중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고성혜(1994)는 어머니의 특성 중 우울 성향이 양육 스트레스와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Cummings와 Davies(1994)는 전통적으로 우울증에 대한 접근이 유전적, 생물학적 특성을 강조하는 개인 내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점차적으로 우울증을 사회 환경적 맥락에서 설명하려는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부정적인 정서성을 가질수록 양육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다(박성연, 전춘애, 한세영, 1996).

어머니의 양육불안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심리 상태 중의 하나로 양육 상황에서 경험하는 부모의 불안을 의미한다. 양육불안 또한 앞서 언급한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개인 내적인 요인과 사회 환경적 맥락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는 요인일 것으로 추측된다. 양육 상황에서 부모가 느끼는 불안과 관련된 인지적인 사고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양육행동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즉 양육 상황에서 어머니가 불안해하는 구체적인 내용 평가를 통해 양육에 관한 부모 상담에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머니의 불안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어머니의 분리불안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어머니의 특성불안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불안을 단지 특성불안으로 측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부모의 양육불안은 본래 부모 개인의 특성적인 요인과 함께 한국사회의 문화적인 특성, 한국의 부모 자녀관계의 특성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 등의 사회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정환(2007)도 한국 문화에 맞게 만들어진 척도를 사용하여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양육불안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영유아 자녀들, 미취학 자녀들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불안에 대한 연구 결과는 부족한 실정이다. 자녀의 초등학교 시기는 아이의 학업, 정서, 또래관계 등 전반적이고 다양한 영역에 있어 본격적으로 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이며,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사회적 적응을 스스로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여전히 부모의 돌봄과 개입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인지, 정서, 사회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모의 도움과 개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인 학령 전기와 학령기 시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양육불안에 관한 척도 개발을 통해 부모의 양육불안의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 및 부모의 심리 치료적 개입을 돕고자 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불안이 부모의 양육행동, 자녀의 문제행동과 심리 상태에 미치는 영향 및 자녀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부모의 원가족과의 문

제 및 자아분화, 부모 자녀관계 문제 등 다양한 연구들에 대한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이론적 배경

1) 양육과 관련된 요인

부모 자녀관계는 모든 가정마다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부모 자녀 상호작용에 있어서 자녀가 가진 특성과 부모의 특성,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는 사회적 맥락 등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정옥분, 정순화, 2001). Belsky(1984)는 자녀 양육의 결정 요인 모델에서 자녀 양육의 결정 요인을 부모, 자녀, 부모가 처한 상황 요인 등 세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부모 요인으로는 부모의 성격과 심리적인 특성을, 자녀 요인으로는 성과 기질을, 상황 요인으로는 배우자와의 관계, 직업, 심리적 지지체계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부모 요인을 살펴보면, 부모는 그들 자신의 기질적인 요인을 들 수 있는데, 자존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게 온정적·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 부모로서의 역할에 만족감을 갖는다(Cox, Owen, Lewis, & Henderson, 1989). 반면 자존감이 낮은 부모는 자신들의 자녀에게 자존감이 높은 부모에 비해서 적게 애정을 표현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더 신경질적이고 처벌적인 경향을 보였다(Simons, Whitbeck, Conger, & Melby, 1990). 또한 부모의 성격에 따라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인식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외향적인 부모가 내향적인 부모보다 영유아에게 좀 더 반응적이고 민감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타인과 상호 관계적 성향이 높은, 즉 순응성이 높은 부모는 영유아를 양육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정서 반응과 민감성을 자주 보이는 반면 부정적인 정서 반응과 통제를 덜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근주 외,

2012).

부모가 제공하는 양육의 질은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원가족(family of origin)과의 경험과도 관련이 있다. 우리는 대체로 부모를 모델로 관찰함으로써 부모 역할을 모방하면서 배우게 된다. 부모가 양육되는 과정에서 획득한 반응, 소망과 감정들이 부모가 된 후 자녀에게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그들 자신의 부모와 안정된 관계를 형성했던 부모들은 자녀에게도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고 양육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보다 정서적인 지지나 도움을 주고, 발달상의 문제점을 이해하며, 그들 자녀의 개별성을 수용한다. 그러나 성장과정에서 자신들 부모의 행동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으면, 이들은 부모가 되어 자신들이 경험한 부정적인 행동을 되풀이하거나, 그러한 행동에서 결함을 보이게 된다. 즉, 부모 역할은 자신의 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Van Ijzendoorn, 1992).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양육된 방식과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한다면 자신의 부모가 사용했던 양육방식과 태도를 그대로 모방하여 사용할 것이다. 반면 지나친 통제나 간섭을 받았던 사람은 부모와의 정반대의 양육 방식을 취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부모의 양육태도가 과거의 경험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부모가 과거의 경험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보다 효율적으로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려는 부모들도 많이 볼 수 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자기가 성장해 온 것과는 다르게 자신의 자녀를 키워보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자신의 부모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도 있다(장원동, 류현수, 2000). 이렇듯 원가족 내에서의 부모-자녀간의 관계나 가정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부모의 양육시 취하는 방식과 태도는 다음 세대의 자녀 양육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

부모의 양육 방식에 대한 신념 역시 부모 역할에 영향을 미친다. 양육에 대

한 신념이란 부모가 양육에 대해 굳게 믿는 생각이나 마음으로 이는 부모 양육태도와도 연결된다. 즉,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일수록 영유아에게 허용적, 민주적, 수용적 태도를 갖게 한다(박근주 외, 2012). 이와 같이 부모 양육행동에 미치는 부모의 특성들은 부모의 기질, 자존감, 원가족과의 관계, 양육에 대한 신념 등이 있고 그 밖에도 부모의 교육 수준, 연령, 부모 역할에 대한 훈련 경험, 출산에 대한 교육 유무 등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요인이다(정옥분, 정순화, 2001).

부모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의 요인들을 살펴보면, 출생 직후 보이는 자녀의 긍정적·부정적 기분, 활동 수준의 정도, 감정 표현의 수준, 내향적·외향적인 성격, 새로운 자극에 대한 접근이나 회피같은 기질적 특성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적응이 쉽고 순한 기질을 가진 영유아의 경우는 부모의 애정적인 행동을 이끌어내지만, 아동이 민감하고 까다로운 경우는 부모에게 높은 수준의 심리적 조절 능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박근주 외, 2012). 또한 아동의 성장속도와 형태, 출생순위나 성별도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강희경, 조복희, 1999).

마지막으로 부모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환경 요인도 부모 역할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 역할은 부부관계나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망 등의 영향을 받으며, 나아가 사회 경제적 지위나 종교,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부모가 속한 사회 경제적 수준은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교육 수준이 높고 수입이 많으며, 전문직에 종사하는 가정의 어머니들은 낮은 사회 경제적 수준의 어머니들에 비해 그들의 자녀에게 자유를 많이 주고 처벌을 적게 하며, 보다 애정적이고 보다 적절한 반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부모에게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부모

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들에 비해 자녀에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애정을 덜 보이며, 이러한 결과로 자녀들은 더 많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Hamner & Turner, 1996). 또한 배우자의 지지적인 태도 역시 부모 역할에 미치는 요인이다.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하는 어머니는 자녀의 욕구에 대해 보다 민감하고 반응적인 경향을 보인다(Simon et al., 1990).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해 지지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아동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와 함께 있거나 아버지가 어머니를 도와줄 때, 어머니는 유아에게 애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해주고, 안아주는 반응을 더 많이 보였다. 또한 불행한 결혼을 경험하는 어머니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배우자보다는 자녀와의 관계에만 몰두함으로써 자신의 불행한 결혼생활을 보상하려하며, 그 결과 더욱더 적극적으로 부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Hamner & Turner, 1996). 또한 사회적 지원망인 부모, 친구, 이웃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어머니는 그들의 자녀에 보다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시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녀가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어머니는 친지나 친구로부터 지원을 받음으로써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핵가족이 보편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 잡게 되면서 부모들은 자신의 원가족이나 부모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보다는, 자신들의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단지 자신의 친구나 이웃이 그렇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는 자녀에게 배변훈련을 시키고 체벌을 하기 시작한다. 그 밖에도 대중 매체, 특히 텔레비전과 인터넷은 부모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정옥분, 정순화, 2001). 대중매체는 부모의 양육을 하는데 있어 가치관을 지지하거나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 같이 Belsky의 모델은 양육을 (1) 다양한 결정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2) 부모, 자녀, 사회적 맥락의 특성들은 양육의 성장-증진을 결정하거나

지지하는데 동등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3) 양육의 특성은 부모 자녀관계에 존재(예, 부부관계, 사회적 지지체계, 직업 경험)하는 더 광범위한 맥락에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Cicchetti & Cohen, 2006). 이 모델의 핵심 개념은 양육 기능이 개인(양육의 개인적 태도 혹은 자녀의 특성), 사회적(부부관계의 질, 사회적 지지체계, 직업적 스트레스)요인 등 다중적인 경로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Bigner(2006)는 부모의 역할 행동 모델에서는 역할 행동에 미치는 요인들로서 양육행동에 태도, 가족 생태학적 요인, 훈육 방식, 아동의 영향, 원가족의 영향, 주된 부모 역할 기능, 부모-자녀간 조화, 문화적 영향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 경제적 수준에서의 가치 체계의 차이는 아동을 양육하는 방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부모의 양육방식은 아동의 발달단계와 일치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신의 원가족의 부모가 보여주었던 모습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아동의 기질과 같은 아동의 영향도 받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가치와 가족이 지닌 신념을 가르치는데 사용하는 부모의 훈육 방식과 가족 수입 수준, 민족 정체성, 또는 가족 구조의 유형과 같은 가족 생태학적 요인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양육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와 신념들도 부모의 양육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정계숙 외, 200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모델(Abdin, 1976)에서도 보면, 양육 스트레스를 크게 부모 요인과 자녀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부모 요인은 우울, 유능감, 성격 및 병리적 특성, 양육자의 애착, 배우자와의 관계, 역할 제한, 역기능적 양육, 양육자의 건강, 사회적 지지로 구성하고 있고, 자녀 요인은 적응성, 수용성, 요

구성, 정서, 과잉행동/ 주의력, 양육 강화로 구성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같이 부모의 역할행동과 양육을 하는데 있어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도 단순히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양육과 관련된 문헌에서 나타난 구성 요인은 다음과 같다.

표 1. 양육 관련 연구의 구성 요인

문헌	연구자	구성 요인
양육의 결정 요인	Belsky(1984)	*양육에 대한 개인적 특성(우울, 가치 성향 등) *자녀에 대한 개인적 특성(자녀 기질이나 행동 수준 등) *사회 환경적 특성(사회 지지체계) # 하위 요인 : 발달력, 성격, 부부관계, 직업, 사회적 지지, 아동 발달, 아동 특성
양육 스트레스 모델	Abdin(1995)	*부모 요인 : 우울, 유능감, 성격 및 병리적 특성, 양육자의 애착, 배우자와 관계, 역할 제한, 역기능적 양육, 양육자의 건강, 사회적 지지 *자녀 요인 : 적응성, 수용성, 요구성, 정서, 과잉행동/ 주의력, 양육강화
양육 스트레스	Crnic & Acevedo (1995)	*부모 특성 : 부모의 성격특성, 자기 효능감, 정서, 신념 *아동 특성 : 기질, 연령, 발달적 단계, 성 *가족체계요소 : 부부관계의 질, 사회적 지지, 소득
부모의 역할행동 모델	Bigner(2006)	양육행동에 태도, 가족 생태학적 요인, 훈육방식, 아동의 영향, 원가족의 영향, 주된 부모 역할 기능, 부모-자녀간 조화, 문화적 영향

<p>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연구</p>	<p>고성혜(1984)</p>	<p>*자녀 관련 변수 : 학년별, 성별, 건강, 학업 성적, 문제행동 *어머니 관련 변수 : 연령, 교육 수준, 건강, 우울 성향 *가족환경 변수 : 가족의 소득, 남편의 직업, 어머니의 취업, 자녀 수</p>
<p>양육 효능감 요인</p>	<p>Coleman & Karraker(1997)</p>	<p>1) 과제별(task-specific) 양육 효능감 : 구체적인 양육 과제를 부모가 잘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감과 기대감을 의미. 구체적인 수행 과제는 연령에 따라 달라짐 예) 영아인 경우, 수유,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등 양육행동을 바탕으로 효능감을 평가 2) 영역별 양육 효능감(domain-specific) 구체적인 양육 과제를 비슷한 영역으로 묶고 각각의 영역에서 부모가 인지하는 자신감과 기대감을 의미 예) 자녀와 함께 놀이하는 영역, 자녀를 교육하는 영역, 사랑과 지원을 해주는 영역 등 3) 영역 일반 양육 효능감 자녀 양육의 전반적인 상황과 양육행동에 관하여 부모가 스스로 인지하는 자신감과 기대감을 의미</p>

양육과 관련된 척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 양육과 관련된 척도들의 구성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양육불안에 대한 요인들을 추출하고자 한다.

표 2. 양육 관련 척도의 구성 요인

척도 명	저자	척도 구성 요인
양육 스트레스	Abidin(1990)	*아동 특성 : 주의 분산/ 과잉행동, 적응성, 부모 강화, 요구성, 정서, 수용성 *부모 특성 : 효능감, 고립, 애착, 건강, 역할 제한, 우울, 배우자 관계
한국판 양육스트레스 척도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 김혜진 (2008)	*아동 영역 : 적용, 수용, 요구, 기분, 주의산만/ 과잉행동, 보상 경험 *부모 영역 : 우울, 애착, 역할제한, 유능감, 고립, 배우자, 건강
한국판 양육 효능감 (K-EGSCP) 척도	성지현, 백지희 (2011)	애정, 일상체계조직, 훈육, 놀이, 교육, 부모의 책임, 결과 통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 총 13문항	Giband-Wallston 과 Wandersman (1978) 신숙재(1997)가 번역	*인지적 차원 : 부모로서의 효능감(9 문항) *정서적 차원 :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4문항)
양육효능감	최형성, 정옥분 (2001)	전반적 양육 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하는 능력 학습 지도 능력 훈육 능력
양육 효능감	Allen(1993)	사랑, 통제, 의사소통, 교육, 전반적인 효능감

부모 만족감 척도 (CGPSS)50문항	Guidubaldi 등 (1985)	배우자 만족도 자녀-부모 관계 부모 수행 가족훈육과 통제 전반적 만족감
한국판 부모 만족감 척도 (CGPSS)36 문항	현은강, 조복희 (1994)	일반적 만족도 부모-자녀 관계 배우자 지지 부모역할 갈등
Kansas Parental Satisfaction Scale (KPSS)	James 등(1985)	자녀의 행동에 대한 만족감 부모로서 자신에 대한 만족감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감
부모역할 자긍심 척도(46문항)	이정윤, 류희균 (2006)	부모됨의 전반적 만족감 배우자의 부모 역할에 대한 만족감 부모 역할 자신감 자녀 지도에 대한 통제감 부모 자녀관계 만족감
부모 역할 만족도 척도	현은강(1994)	일반적 만족 요인 부모 자녀관계 요인 배우자의 지지 요인 역할 갈등 요인 자녀의 지지 요인
부모 역할 행동 척도	김은정 외(2006)	긍정적 차원 : 정서적 공감, 긍정적 존중, 합리적 권위 부정적 차원 : 강압적 성향 완벽주의적 성향

이와 같은 연구들을 살펴볼 때,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육불안 또한 이같이 부모의 개인적인 특성과 환경적인 특성,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양육불안은 Bowlby가 제안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서 볼 때, 어머니의 원가족에서 경험하는 애착 형성 경험이 이후 자녀와의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보면 자신이나 타인, 세상에 대한 표상이 부정적일수록, 즉, 성인애착 두 차원(애착불안, 애착 회피)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처럼(안하얀, 서영석, 2010, Lopez & Gormley, 2002; Lopez, Mitchell, & Gormley, 2002; Wei, Vogel, Ku & Zakalik, 2005), 어머니의 애착은 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양육에 관한 인지적 요인 중 하나로 연구자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양육 효능감은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경향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인지능력 등을 포함하여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최근 연구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Bornstein et al., 1998 ; Coleman & Karraker, 1997 ; Dumka et al., 1996). 앞서 연구들에서도 애착과 양육효능감이 양육 관련 요인으로 공통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처럼,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와 신념, 효능감과 애착은 양육불안에 미치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또한 점차 한국 사회는 핵가족화가 되면서 더욱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을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풍부하지 못한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게 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인터넷, TV, 부모 교육 강좌, 부모 교육관련 도서 등

의 양육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양육 정보는 지나치게 범람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듯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 체계 및 전문적 도움 추구 행위도 변화해가고 있으나, 이러한 양육정보 속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하고 적용해야할지 모르는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즉 사회적 지지체계의 불안정함과 이러한 지지 체계에 대한 신뢰감 저하는 더욱 양육에 있어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최상진, 김혜숙, 유승엽(1994)이 분석한 정(情)과 한(恨)이라는 심리적 특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부모는 자녀와 끈끈한 정으로 묶여 있다. 다른 사람이 자녀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예민하고 어머니는 부모 역할에 있어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녀와의 밀착된 관계로 인해 과도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기존의 양육과 관련된 모델들과 구성 요인, 그리고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양육불안에 미치는 요인을 ‘어머니의 애착, 양육에 대한 태도와 신념인 양육 효능감, 사회적 지지체계, 한국 사회의 부모 자녀관계’들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2) 불안의 요인

불안의 요인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설명한다. 우선 Spielberger(1972)는 불안을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상태 불안은 유기체의 일시적인 정서 상태로 시간에 따라 변하고 그 강도도 일정하지 않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지는 주관적인 감정적 상태이며, 순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불안을 의미한다. 특성불안은 한 개인의 변화하지 않는 행동 성향으로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도 위협을 느끼는 일반적인 성

향을 가지며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불안 성향을 말한다. Spielberger와 동료들(1983)은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이 서로 다르게 정의되지만,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특성불안이 높으면 상태 불안도 높고, 특성불안이 낮으면 상태불안도 낮다고 하였다. 부모 양육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에서 이러한 Spielberger의 척도 중 상황에 따라 잘 변하지 않는 특성(Trait) 불안 척도가 많이 사용되어 왔다(강영미, 2004; 고인숙, 1998; 신혜린, 2012; 양정하, 2010; 이경숙, 1997).

Lazarus와 Averill(1972)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바처럼, 이러한 불안의 요인을 상황 변인과 기질 변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상황 변인은 자극을 둘러싼 전후 관계의 요소로서 넓은 의미에서 정보처리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을 나타낸다. 기질 변인은 개인의 특성과 관련해서 불안을 유발시키는 요소로 인성 특성, 신념, 태도 등을 포함하며 개인의 생물학적, 문화적 천성, 개인사가 결합된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심리적 매개체에 의한 판단이 상징적(Symbolic) 요인, 예견적(Anticipatory) 요인, 불확실성(Uncertain)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상징적 요인은 불안을 유발하는 위협이 사고, 개념, 가치, 인지 체계에 관련된 것이어서 사람들이 자신의 상징이 더 이상 실제와 조화를 이루지 않거나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때 무력감이 나타나고 그 결과로 불안이 생긴다. 예견적 요인은 위협이나 좋지 않은 일들의 예견이 불안을 촉진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불확실성 요인은 언제 어디서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 불안을 유발한다는 것이다(송하봉, 2001에서 재인용). 부모 양육에 있어서 지나치게 높은 불안과 염려감은 자녀 양육에 있어 아이 문제를 융통성있게 다루지 못하고 아이 문제를 지나치게 문제시하며,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부정적으로 결과를 미리 예견하여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는 등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양육

을 하는데 있어 불안은 부모 본래의 기질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체계 등의 상황적인 요인들이 함께 맞물려 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러한 불안을 지속시키는 성격적인 특성에 대해서 Peurifoy(1988)은 완벽주의, 인정받는 것에 대한 과도한 욕구,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 증상을 무시하는 경향, 통제에 대한 과도한 욕구라고 하였고, 이러한 욕구를 확인하고 작업하며 바꿀 수 있도록 돕는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완벽주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삶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어느 것이든 약간이나마 미치지 못할 때 실망하거나 비판적이 된다. 둘째 자신과 자신의 업적에서의 작은 결점과 실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 잘 못된 것에만 집중하면서 옳은 것은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다. 즉 이러한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높은 기대치과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고 자녀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며 자녀의 실수에 대해서 잘 참지 못하고 허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불안과 공포증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은 인정받는 것에 대한 욕구를 과도하게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불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떠오르는 모든 신체적 증상을 무시한다. 마지막으로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은 통제에 대한 과도한 욕구를 지니고 있어 삶에서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기를 원한다(Bourne, 2005). 그러나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이렇게 예측 가능한 것이 불가능하며, 불안한 어머니들은 자신이 더욱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양육이라는 영역에서 불안감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Salkovskis(1985, 1989)는 불안 장애 중의 하나인 강박증(OCD)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이는 불안을 촉발시키는 주요한 매커니즘에 있어서 위험을 예방하고

자하는 개인적 책임감에 대한 왜곡된 신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안하였다. 강박증을 가진 사람들은 평범한 침투사고를 때때로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가진 스트레스와 관련지으며 이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낀다. 강박증 증상의 발달과 유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6가지 유형의 신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강박증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을 지나치게 중요시’하고 ‘사고를 통제하거나 억압’하려 노력하며, 너무 많은 ‘책임감’으로 인해 죄책감을 유발한다. 또한 강박증을 가진 사람들은 ‘위험에 대해 과대 평가’를 하고 모호한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하며 ‘확실성에 대한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고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계속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들은 ‘완벽주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완벽주의적인 태도는 모든 문제에 정확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가정한다. 심지어 작은 실수조차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Sabine & Gail, 2006).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불안감이 지나치게 높은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지나친 책임감으로 인해 자기 탓을 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자녀 양육에 있어 더욱 부담감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모호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녀의 실수에 대해서도 너그러이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의 실수에 대해서 과대 평가하고 자신의 양육태도나 양육의 결정방식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자기 신뢰감이 부족하여 불안정하고 일관되지 못한 양육태도를 보이기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Burns(1980)은 완벽주의적 부모들에 대해 그들은 자녀가 뛰어난 수행을 하면 사랑과 승인을 보상으로 이용하고, 자녀가 실수나 실패한 경우에는 불안과 실망으로 반응한다고 하였다. 자녀는 이러한 부모의 태도를 처벌과 거부로 인식한다. Missildine(1963)의 연구에서 완벽주의 부모는 자신의 성취에도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자녀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거나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살펴볼 때, 불안한 어머니들의 성격적인 특성들 중 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불안은 사회적 지지와 같은 상황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Rahaly(1972)와 Wakeman(1975)에 의하면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은 자기 실현이 낮고 자기 신뢰가 부족한 반면, 사회적 승인과 권력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경쟁력이 높아 교우간의 대인관계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겪게 되게 때문에 사회적 지지 정도가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Griffith(1975)도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지 정도가 낮고 동시에 대인관계 수행에서 더 많은 활동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양육을 하는데 있어 불안감이 높은 부모는 자신의 양육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여 사회적 지지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양육 정보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다양한 추구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같은 사회적 지지도 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그밖에 불안에 관한 연구들과 척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불안 관련 연구 및 관련 척도의 구성 요인

불안	연구자	구성 요인
불안	Lazarus & Averill(1972)	*상황 변인 : 자극을 둘러싼 전후 관계의 요소로서 넓은 의미에서 정보처리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 *기질 변인 : 개인의 특성과 관련해서 불안을 유발시키는 요소로 인성 특성, 신념, 태도 등을 포함하며 개인의 생물학적, 문화적 천성, 개인사가 결합된 결과

불안 요인분류 Phillips(1972)	<p>시간적 차원에 의해 구분</p> <p>* 직접적 요인 : 불안이 발생하는 행동 장면에 직접적 요인과 그러한 요인보다 앞서는 간접적 요인으로 구분함.</p> <p>-상황 요인 : 기대된 만족을 박탈하는 위협적인 조건/ 위협 성격의 불분명함/ 상황적 제약 조건 등</p> <p>-개인 요인 : 스트레스 조건에 의해 위태로워진 동기 유발, 상황에서 유발된 갈등 등</p> <p>* 간접적 요인</p> <p>-환경 요인 : 특정한 과거 경험. 소수 민족, 사회적 하위 계층, 부모 아동 관계의 특정한 측면, 위협 반응의 사회적 패턴</p> <p>-유기체적 요인 : 성과 성 역할의 인식/ 출생 순서/ 환경에 대한 일반적 신념과 환경과의 관계/ 지적 능력과 같은 개인적 요소</p>
상태불안/ 특성불안	<p>Spielberger(1972)</p> <p>*상태불안 : 현재(바로 지금)느끼는 우려, 긴장, 신경과민, 걱정 등의 느낌 측정</p> <p>*특성불안: 피검자의 일반적인 불안 성향 측정</p>
Hamilton 불안 척도	<p>Hamilton, M. (1959)</p> <p>정신적 불안 증상 신체적 불안 증상</p>
불안을 지속시키는 성격 특성	<p>Peurifoy(1998)</p> <p>완벽주의, 인정받는 것에 대한 과도한 욕구,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 증상을 무시하는 경향, 통제에 대한 과도한 욕구</p>
강박증 내 신념의 유형	<p>Sabine & Steketee(2006)</p> <p>생각을 지나치게 중요시함, 사고 통제, 위험에 대한 과대 추정,</p>

확실성에 대한 욕구,
책임감,
완벽주의,
불안의 결과,
긍정적 경험에 대한 두려움

불안한 사람들이 자기와 타인,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두려워하는 핵심신념(나는 취약하다, 세상은 위협하다)은 위협에 대한 해석, 불안한 감정, 과도하게 보호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것이다(Sabine & Gail. 2006). 불안한 어머니는 자신의 양육에 대한 태도와 신념에 있어서도 불안감을 가지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 즉, 지지체계에 대해서도 불신감이 높으며 자녀에 대해서도 신뢰감이 부족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는 등 자기와 타인, 세상을 보는 신념에 있어서 불안감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육불안은 이러한 불안과 관련된 성격 특성인 완벽주의적인 성향과 양육 효능감 수준 같은 개인 내적인 변인과 함께, 한국 부모 자녀관계 및 사회적 지지와 같은 상황적인 변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요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3) 양육불안의 정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며 부모가 된 후 아이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잘하고 모든 면에서 완전하길 기대하며 아이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가지게 되는 부모들의 심리적인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경험하는 불안의 원인 및 기제는 우리가 개인으로 흔히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인식하고 있는 불안과는 유사하지만 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특성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부모 양육불안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연구들은 미비하다. 우선 불안장애에 관한 진단 기준을 살펴보면, 대체로 불안감, 두려움, 공포심, 과잉걱정, 안절부절 등과 신체적 증상으로는 경련, 전신근육통, 피로감, 빈맥, 호흡곤란, 이상감각, 소화불량, 빈뇨, 발한 및 발작, 그리고 상호 중복된 증세로 어지러움과 졸도감, 불면 및 악몽 등이다(이종훈, 1996). 불안은 자신의 안녕이 위협을 받는다고 지각하거나 자존심이 손상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 때 생기는 정서 상태로,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정서 중 하나이다. 불안에는 적응적인 요소도 있어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는 ‘위협’으로 지각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한다.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양육불안’이란 용어를 정의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양육불안’이란 용어는 양육과 불안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불안’과 ‘양육’에 관한 기존의 구성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앞서 불안의 요인(Lazarus & Averill, 1972)과 양육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들(Abidin, 1995; Belsky, 1984; Binger, 2006)을 볼 때, 양육불안은 이같이 부모의 개인적인 성격특성, 양육에 대한 신념 및 태도와 같은 기질 변인과 문화적인 요인, 사회적 지지요인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양육불안이란 부모가 자녀 양육이라는 역할을 수행할 때 느끼는 불안을 말한다. 이러한 양육불안은 부모의 성격 특성과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 및 신념 등과 같은 부모 개인적 특성으로 유발되고, 애착문제, 사회적 지지요인으로 인해서도 유발되며, 한국의 문화적인 요인으로 인해서도 유발되는 불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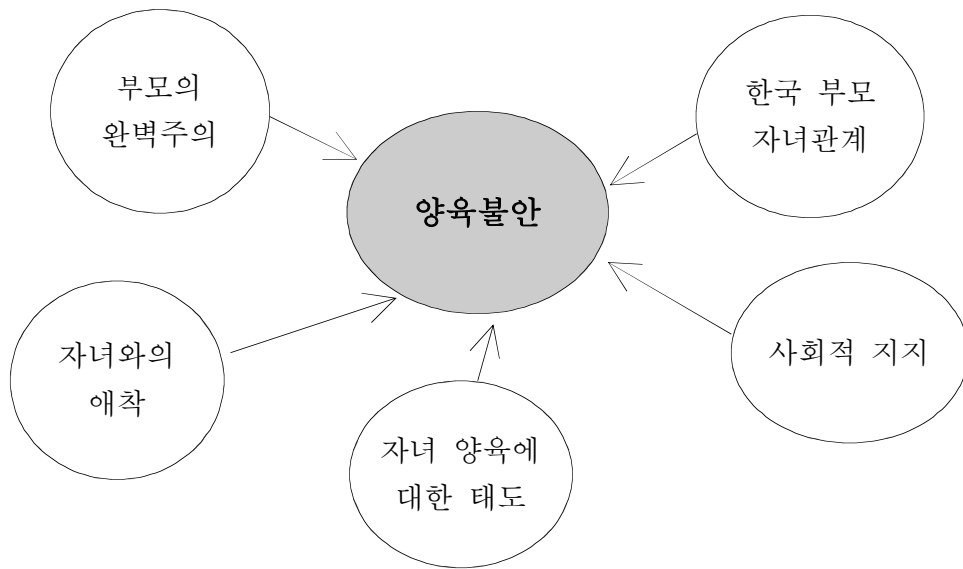


그림 1. 양육불안 모형

앞서 양육 역할 요인과 불안 요인들을 종합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양육불안은 불안에 대한 개인적 특성과 사회 문화적인 요인, 그리고 양육의 과정에서 부모 자녀 관계 등 다양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할 때, 부모의 양육불안은 양육불안을 유발하는 성격 특성, 특히 완벽주의 성향과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에 대한 태도 및 신념, 원가족과의 애착, 한국의 부모 자녀관계의 특성, 사회적인 지지 요인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4) 양육불안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

어머니의 성격이나 어머니의 정서 상태가 자녀의 양육과 자녀의 문제행동, 정신병리와 상당 부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Buss와 Plomin(1975)은 부모 양육태도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가 부모의 기질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공포심을 가진 부모는 양육에 자신이 없고 불안이 따르며 그것이 자녀에 대한 통제 암시를 주고 자녀의 통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통제하는 과잉통제나 과소 통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특성불안과 양육태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경숙(1997)은 어머니의 특성 불안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태도인 통제적 태도, 거부적 태도, 비밀관성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고,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주위를 더 위험하고 위협적이라고 느낀다고 하였다. 양정하(2010)가 유아를 둔 부모 대상으로 부모의 비합리적 신념과 특성 불안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특성 불안은 양육 태도의 하위 요인 중 온정, 격려 및 한계 설정과 부적 관계를 보였다. 반면 양육태도의 하위 요인 중 과보호, 허용과 거부, 방임 양육태도, 그리고 특히 모든 비합리적 신념 요인과는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어머니의 불안과 우울 및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와 영유아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천혜영, 2011)에도 어머니의 불안은 우울, 일상적인 스트레스, 타인 양육의 죄책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불안이 높으면 주의를 지각하는 정도가 달라지고 양육에 대한 태도와 신념, 죄책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불안 및 양육태도는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을 둔 부모간에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을 둔 어머니에 대한 불안, 양육태도의 비교 연구(서우경, 김도연; 2013)에서 보면, 일반 아동 어머니가 장애 아동 어머니보다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불안은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 어머니 모두에게서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장애아 부모는 정상아 부모에 비해 이혼율이 높고, 우울, 불안, 좌절, 근심 등 정서적 문제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한 주위의 시각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숙, 1990).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 가운데 어머니의 불안은 양육 스트레스와 서로 공통성이 있거나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존적인 발달을 보이고(Hock & Schirtzinger, 1992), 이러한 불안은 부모 역할에 대한 불만족과 역기능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한다(서우경, 김도연: 2013).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Belsky(1984)는 어머니의 성장과정인 아동기 때 경험, 어머니의 특성, 그리고 아동의 특성 등이 양육행동을 결정해주는 원천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Abidin(1992)의 양육 스트레스 모델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역시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 경험 및 인성 특성이나 아동의 특성 등에 의해서 어머니의 내면에 형성되는 정서 상태 혹은 인지적 과정이므로, 어머니와 아동의 특성 변인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특히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시해주고 있다. 어머니가 일상생활 특히 양육 상황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개념인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양육행동에 있어 부모 자녀간 갈등과 좌절이 일어날 뿐 아니라 가족의 복지를 위태롭게 한다(이재연, 최영희, 1990). 김경미, 박범혁, 김영희(2005)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어린 시절 과보호적 양육경험과 거부적 양육 경험 모두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 경험이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향과 어머니의 분리 불안을 통해서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언주(2001)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특성 및 아동의 초기 기질과 과보호적 양육 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분리 불안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살펴볼 때, 어머니의 특성, 특히 어머니의 불안은 양육태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이 입증되고 있다. 그밖에도 불안한 어머니는 우울하기 쉽고 우울한 어머니는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며, 긍정적인 정서 표현 기술이 부족하여 어머니-자녀의 친밀한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이유진, 2006). 또한 불안하고 우울한 어머니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일관적이지 못한 양육행동을 보여 자녀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악순환을 경험한다(허기순, 김영희, 2004).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불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자녀 양육 상담에 있어 이에 맞는 구체적인 치료와 상담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자녀 양육에 대한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불안 척도 유형과 문제점

인간의 불안을 측정하는 척도들이 많이 개발되어 왔다. 불안 정도의 측정 도구로는 Spielberger의 특성상태 불안척도, Hamilton의 불안 척도, Zung의 자가평가 불안 척도, Beck의 Beck Anxiety Inventory 등이 있다. Zung의 자가평가 불안척도는 다양한 불안 증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정서적 측면은 물론 정신 생리적 측면까지도 아울러 측정하고 있다.

근래에 흔히 사용하는 자기보고형 불안검사에는 Taylor(1953)의 외현적 불안 검사(Manifest Anxiety Scale: MAS), Spielberger(1983)의 특성상태 불안척도,

그리고 대인불안 측정도구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Fear of Negative Evaluation : FNE), 사회적 회피척도(Social Avoidance & Distress Scale : SAD, Watson & Friend, 1969)등이 있다. 최근에 불안의 인지적 특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 한국판 개정된 시험 불안척도(조용래, 2011), 한국판 청소년 사회불안척도(K-SAS-A)(양재원 외, 2008), 한국판 Liebowitz 사회불안척도(LSAS)(유은승 외, 2007), 한국판 발표불안척도(조용래 외, 2009), 공황장애척도(원호택, 권석만, 박현순, 1995)를 비롯하여 불안척도 및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사회적 불안 척도 등이 번안되고 제작되었다(조용래, 원호택, 1997). 또한 상태 불안 척도에는 다중 정서형용사척도(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List : MAACL, Zuckerman & Luvin 1965)와 기분상태검사(the profile of Mood States : POMS, McNair et al, 1971)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중 Spielberger 등의 특질상태 불안척도와 다중 정서형용사척도(MAACL) 그리고 Taylor의 외현적 불안척도가 많은 실험연구와 조사에서 사용되고 있다(원호택, 2001). 그러나 이러한 불안 척도의 문항들을 살펴보면, 불안의 특성만 측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울감, 부끄러움, 슬픔, 행복감, 자신감, 침착함 등 다양한 정서 상태를 포함하여 측정하고 있어, 불안이라는 정서 상태를 정확하게 변별하여 측정한다고 보기에 어렵다. 또한 기존의 불안 척도들은 정신 생리적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측정하고 있으나, 양육불안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인지적인 특성을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다. 시험 불안, 발표 불안 등과 같이 특정상황에서 보이는 인지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만든 경우는 많으나, 양육의 특성을 부모의 불안을 고려한 척도는 부재하다.

기존의 부모 양육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한 개인 특성으로서의 불안을 측정하는 Spielberger의 특성불안 척도를 사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강

영미, 2004; 김우경, 2012; 신혜린, 2012; 양정하, 2010; 이경숙, 1997). 이러한 특성불안 척도는 시간의 영향을 덜 받는 심리적 불안 상태를 측정한다. 즉 어머니의 본래 기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변화하지 않는 심리적인 불안 상태를 측정하여 자녀와의 관계 및 양육 행동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특성(trait) 불안 척도를 살펴보면, 우울과 불안 등의 모호한 정서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불안이라는 정서와 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어, 불안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 외의 Beck의 불안척도, Taylor의 외현적 불안척도, 다중 정서형용사척도(MAACL) 등에서도 불안의 인지적이고 정서적이며 신체적인 증상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양육의 특성을 반영하여 명확하게 양육불안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존의 부모 양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척도들을 살펴보면, 부모 효능감 척도의 하위 요인으로 ‘부모로서의 좌절 및 불안감’의 4문항만 부모의 정서적인 차원을 측정하고 있어(Giband-Wallston & Wandersman, 1978), 부모의 양육을 하는데 있어 경험하는 불안을 측정하는 척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느끼는 스트레스를 다각도로 측정할 수 있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도 변안하여 한국형으로 표준화한 K-PSI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 도구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적합한가에 대한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그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김기현, 강희경 ; 1997). 부모의 양육 상황에 대해 느끼는 특성 불안과 애착, 문화적인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서 영향을 받는 한국 부모 양육불안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해 보인다.

6) 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양육불안 척도 구성을 위해 양육불안과 관련된 요인들에 관한 기존의 문헌들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완벽주의와 양육불안

완벽주의에 대한 개념을 심리학적으로 최초로 정의한 Hamachek(1978)은 완벽주의를 자신과 타인에게 상황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행의 질을 부여하는 경향으로 보았다. 그는 완벽주의를 정상적 완벽주의(normal perfectionist)와 신경증적 완벽주의(neurotic perfectionist)로 구분하였다. 우선 정상적 완벽주의자는 노력하는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느끼고 상황이 허용될 때는 완벽해지는 것에서 곧 벗어날 수 있으며 자신의 한계와 상황적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 신경증적 완벽주의자는 자신이 도달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어떤 일을 해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다(박혜선, 2010에서 재인용). Burns(1980)는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이 도달할 수 없거나 비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는 사람들을 말하며,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 안간힘을 쓰고 자신의 가치를 생산성과 성취로만 평가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사람들의 과도한 욕구는 자기 패배만 가져올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완벽주의자들은 또한 우울증, 수행 불안, 시험 불안, 사회 불안, 강박증 등의 심각한 정서 장애에 취약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수행에 대해서도 도달하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지고 불가피하게 실망을 하게 되면서 괴로움을 경험한다. 또한 완벽주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기 쉽고 불안한 사람은 모호한 사건이나 문장을 위협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Mathews, 1990; Macleod & Cohen, 1993) 걱정도 많이 하게 된다(Davey et

al., 1992). 국내 연구에서도 완벽주의와 특성불안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이영주, 2005 ; 조진주, 2008). 이러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의 발달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가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기 쉽다.

완벽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진 Frost 등(1990)은 완벽주의를 ‘수행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경향과 매우 높은 개인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완벽주의를 인지, 행동, 발달적 측면에서 6개의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즉, 개인의 기준, 조직화,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판, 수행에 대한 의심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인 기준’은 자신에게 매우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경향과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조직화’는 정리 정돈과 체계화, 조직화를 좋아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실수에 대한 염려’는 실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실수를 하면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고, ‘수행에 대한 의심’은 자신의 과제 수행 능력을 의심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만족스럽게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반영한다. ‘부모의 기대’는 부모가 자신에게 매우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며, ‘부모의 비판’은 부모의 기대에 자신이 부응하기 어렵고 잘 해내지 못해서 비난을 받아왔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Flett와 Hewitt(2002) 완벽주의를 ‘완벽함을 향한 분투’라고 정의하면서, 극단적인 완벽주의자들은 삶의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Hewitt 등(1991a)은 완벽주의를 개인 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대인적, 사회적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완벽주의적 행동의 대상이 누구인가 혹은 완벽 주의적 행동이 누구에게 귀인되는가에 따라 완벽주의를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3개의 하위차원으로 설명하면서 다차원적 완벽주의척도

(Multidimension Perfectionism Scale : MIPS)를 개발하였다. 우선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는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러한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강조하는 성향을 가리킨다. 자신에게 높고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행위를 엄격하게 평가하며 비판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의 경우 실패 경험과 같은 부정적인 생활사건에 대해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되새기면서 사건을 확대하여 인식하고 실패의 원인을 자신이 성취를 통제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석하여 낮은 자존감을 갖기 쉽고,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Hewitt & Flett, 1991b, 1993). 또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여 자살 가능성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ewitt, Flett & Weber, 1994). 반면 이러한 완벽주의는 긍정적인 면도 함께 지니고 있는데, 우선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종종 적응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개인 내에 자원이 충분히 있거나 이를 건설적으로 추구하려는 경향도 있고(Flett, Hewitt, Blankstein, & Mosher, 1991; Flett, Hewitt, Blankstein & O’Brie, 1991), 숙달목표와 수행접근 목표를 높여(이미화, 류진혜, 2002; 이승희, 1999) 과업지향, 자기 책임감, 결과에 대한 기대 및 미래지향성의 행동특성을 보이기도 한다(윤은정, 2000).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는 타인에게 높은 기준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의미있는 타인에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부여하고 그 기준을 완벽하게 해내도록 기대하며 타인의 행동을 엄격히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타인에 대해 관심과 격려 등을 보이면서 타인의 동기를 촉진시키거나, 리더쉽을 발휘해야하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도 한다(Hewitt et al., 1991). 그러나 한편으로는 타인에 대한 비난과 적개심, 불신, 냉소를 갖기 쉽고, 외로움과 나아가 결혼생활의 문제, 가족 간의 갈등 등을 야기하는 등 대인관계에서의 좌절과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Burns, 1980). 마지막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부여했다고 믿고 그러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스스로 비난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자들은 중요한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염려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하며 자신을 거부하는 민감한 경향성을 나타낸다. 이들이 인식하는 과도한 기준은 외부적으로 부과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실패감, 불안, 분노, 우울, 외로움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박혜선, 2010). 이같이 완벽주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높은 기준을 형성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높은 기준을 형성하여 자기와 타인이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매우 좌절감, 무력감, 실망감을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부모가 양육을 하는데 있어 완벽주의적인 양육태도는 부모라는 역할에 있어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고 체계적이고 조직화하여 양육을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완벽주의가 지나치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 자녀가 도달하기 어려운 기준을 세우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아이에게 실망하고 무능력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자신의 완벽하지 않는 양육태도에 대해서도 스스로에 대해 무능력감을 느끼고 부모로서 자신감이 저하되며, 우울해지고 불안해하는 등 정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Hewitt 등 (1995)은 완벽주의자들은 비완벽주의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Zwener와 Deffenbacher(1984)는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은 가능한 위협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추하고 압도당하는 특성을 보이면서 개인적 완벽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두는데, 이들은 자신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과제로부터 회피하고자 하며, 이것이 오히려 불안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즉 완벽주의 성향은 불안과 상당 부분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부모의 완벽주의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Missildine(1963)은 완벽주의적 부모의 특성에 대해 이러한 부모는 자녀의 수행에 대해 과소평가하며 자녀가 더 높은 단계의 수행을 보일 때까지 수용을 보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이 사소한 것을 성취하였을 때 부모는 충분한 인정과 수용을 즉시 보여주지 않고 더 잘 하기를 촉구한다.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아동을 숨 막히게 하는 긴장을 야기하고 자기 자신 및 능력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킨다(Hollender, 1965). Burns(1980)도 마찬가지로 완벽주의적 부모는 자녀가 뛰어난 수행을 하면 사랑과 승인을 보상으로 이용하고, 자녀가 실수나 실패한 경우에는 불안과 실망으로 반응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한 자녀는 부모의 태도를 처벌과 거부와 같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부모의 완벽주의 성향과 양육태도 및 자녀의 심리 특성, 문제행동에 관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영희와 장래수(2004)와 장래수(200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타인지향적인 완벽주의가 부모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유아의 외현적, 내면적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영(2008)의 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어머니의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여아의 자기 지향적,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았으나,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아동의 완벽주의간의 유의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는 직접적으로 또는 심리적 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여아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는 죄의식을 유발하는 심리적 통제를 통해서만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사라형선과 조한익(2005)의 4-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완벽주의와 아동의 우울, 불안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보고되었고, 완벽주의의 하위차원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타인지향 완벽주의가 아동의 우울, 불안에 가장 큰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선(2010)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낮고,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남자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감소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가 낮을수록 여학생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부모의 완벽주의적 성향은 자녀의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병래(2005)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완벽주의 성향과 자녀의 정서 지능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어머니의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은 자녀의 정서 지능 발달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김중희(2006)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완벽주의 성향과 창의성에 대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완벽주의 성향과 유아의 창의적 성향 및 사고와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완벽주의 성향은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어머니의 완벽주의 성향은 자녀의 정서 지능과 창의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연구들을 볼 때, 부모의 완벽주의는 자녀의 정서와 양육행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녀 양육에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높은 부모는 부모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 부여와 건설적인 노력을 야기할 수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동 특성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녀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과 격려를 보이고 동기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모가 자기 자신에 대한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더욱 완벽하게 부모 역할을 잘 하고자 애쓰며 자기 자신에게 높은 기대와 기준을 가지고 양육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완벽주의가 지나칠 경우 어머니 스스로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내지 못하였다는 자괴감, 죄책감, 우울감,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이 양육에 있어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부모는 자신의 양육기준과 태도, 방식들이 완벽하지 않다고 여기고 불안해하며 더욱 완벽한 양육전문가,

부모 양육과 관련된 매스컴, 인터넷 자료들을 수집하고 더 많은 정보들을 얻으려고 다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녀에게 높은 기준을 부여하여 자녀가 이에 응해주길 기대하는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부모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자녀에게 높은 기준을 부여하고 그 기준을 자녀가 완벽하게 해내길 기대하며 자녀가 어머니 자신의 높은 기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에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준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모 역할에 매우 높은 기준을 부여하였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이러한 부모 역할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면 스스로 부모로서 죄책감, 좌절감, 자기 비하, 불안감, 초조감을 느끼는 경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양육을 하는데 있어 부모의 완벽주의는 부모의 양육불안에 미치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2) 사회문화적 특성과 양육불안

서구 문화권에서는 건강한 인간의 특성은 독립성과 개별성, 자율성을 추구하고 격려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조화를 강조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규정해 나가는 상호의존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인간관을 중시하고 있다(최상진, 2000). 서구의 개인주의적 문화의 시각에서 본다면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는 지나치게 밀착되고 융합되어 있는 역기능적 관계로 보일 수 있다. 이 같이 부모의 자아 분화가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부모는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와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문화적 가치가 부모로부터의 자율성보다는 부모와의 친밀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인간은 문화보편적으로 자신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자립하고자 하는 욕구인 자율성의 욕구와 소속감, 정서적 유대의 욕구인 친밀성의 욕구가 있게

마련이다(Kagitichbasi, 1990). 그러므로 한국 부모 자녀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인 친밀성과 자율성이 상호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부모 자녀관계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계주의 문화적 특징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개인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억제하는 것을 장려한다(이운기, 2005). 또 다른 한국인의 자기인식을 통한 부모 자녀관계를 살펴보면, 집단주의 문화에서 한 개인이 자기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변화시켜 나가는데 있어 ‘주체로서의 자기 인식’보다는 ‘타인과의 관계 내에서 자기 인식’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박영신, 김의철, 2004). 자기에 대한 개념이나 우리 집안에 대한 개념의 형성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외집단의 시각을 통해 판단하는 측면이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한국 사람들의 체면 의식이나 눈치보는 행동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박영신, 김의철, 2004). 그러므로 한국인의 자기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 서구 사회에서 개인중심으로 접근하는 것과 달리, 관계 맥락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에서도 이러한 관계주의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상진(2003)은 한국의 부모 자녀관계나 자녀 양육 방식에 있어서 한국의 부모와 서양의 부모가 서로 다르게 자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즉 서양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영향력을 부모로부터 발생하는 힘으로 보며, 부모가 상벌을 행사하고 부모가 힘을 통제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힘의 일차적 원천지다. 그러나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을 자신의 혈육, 즉 분신으로 여겨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자신을 희생하며 인고를 감내한다. 그럼으로써 자식이 그러한 부모의 희생을 느껴 부모에 대해 측은해하며 부담을 느끼는 동일체 의식화를 시킴으로써 자녀의 심정 통제에 대한 영향력을 구사한다. 즉 한국의 부모는

자식에 대한 정(情)이라는 열린 마음을 통해 자식을 부모에 대해 심정적으로 여리게 만들어 부모에 대해 항상 미안함, 측은감, 고마움감 등과 같은 측은지정을 갖도록 해 결과적으로 부모에 대해 순종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이운기, 2005).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면 심리도 개입되어, 한국 부모들은 자신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자녀의 성공에 대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인이 독특하게 갖고 있는 정(情)과 한(恨)의 심리가 ‘우리성’ 및 ‘체면’ 심리와 연계되어 한국인 부모 양육 태도는 애정적이지만 통제적이 될 수밖에 없다(이원영, 1983). 따라서 자식이 부모의 고통을,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경험하는 성향이 높고, 나의 잘못된 행동은 나만의 잘못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 혹은 우리 가문에 누를 끼치는 것이라 생각한다(류정현 2007). 이민규, 김효창, 김수정과 조연동(2007)의 연구에서 한국의 부모 자녀관계의 특징은 ‘개별적인 둘’이 아닌 ‘둘이서 하나’인 존재로서 부모자녀 동일체감과 부모자녀 혹은 형제 간의 혈육지정 등 관계주의적인 특성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부모 자녀 관계는 서구의 개별적, 독립적 관계와는 달리 자식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더욱 친밀하고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식을 분신처럼 생각하는 부모자녀 동일체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현정환, 2007).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부모는 자녀를 독립된 개체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 부모들은 자녀에게 자신의 규범과 요구를 제시하는 동시에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고 헌신한다. 또한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는 서구의 독립적인 부모-자녀 관계와는 달리 정. 공감적, 자아 미분화적 관계가 특징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다(정은영, 2008).

전통적 가치관과 서구 문화의 양육 방식의 유입으로 가치관의 혼란과 함께 여성의 자유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지나친 관심과 기대를 갖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특유의 부모 자녀 일

체감은 자식에게 기대하고 자식과 동일화하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생각하게 되어 밀착된 모자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박아청, 1998). 신경아(1998)는 ‘한국 여성의 모성갈등과 재구성에 관한 연구’에서 30대 주부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양육태도에 있어서 전업주부들이 갖는 어머니로서의 정체감 중 특징적인 것은 ‘자신에게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아이에게 해주려는 욕구’ 즉 투사 심리라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같이 모든 것을 아이에게 제공해주려는 노력은 기대감 또한 크게 만들어 전업 주부들은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지시한다고 말한다.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도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자신에 대해 느끼는 무가치함 등의 정신적 갈등과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권경희, 1986; 남유리, 1989). 정은영(2008) 또한 유교문화에서 존경받는 어머니상, 즉 자식에게 헌신함으로써 자식의 사회적 성취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여성의 삶의 이상은 현대 사회의 어머니들에게도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하나의 길로 수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유교적 규범을 내면화한 주부들은 그들이 느끼는 자아 상실감을 자녀와 동일시를 통하여 극복하고, 자신의 욕구를 자녀에게 투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고 있다. 자식을 통해 자기 성취가 가능하며 그것이 정당하다는 믿음으로 그들은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을 쏟는다고 하였다. 허경철과 이용남(1979)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와 자녀의 일체감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7%인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성공을 자신과 연관지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것과 동일시하는 경향은 응답자의 연령, 거주지, 교육 수준의 차이와 관계없이 한결같이 높아, 가정의 심리적 분위기가 안정되어 있지만, 일체감이 너무 강할 때는 자녀의 심리적 분리 및 자아 분화 등을 막을 우려가 있다고 제언한다. Hoffman(1987)은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되지 못해 갈등을 많이 경험하고 부모간에 갈등이 심한 가정의 대학생들은 우울, 불안, 대인관계상의 갈등, 학업 문제에 있어 부적응적 행동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자아 분화수준과 대인관계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제석봉, 1989에서 재인용). 또한 자아분화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정신건강의 하위 영역인 불안이 높게 나타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과정보다는 의존적으로 환경에 지각하고 대처하려 하기 때문에 현실에 올바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하였다(정미란, 1994).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적 전통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사랑과 헌신적인 돌봄, 높은 관심과 정성스런 교육이 부모 역할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져 왔다(정옥분, 1998). 그리고 출세 지향적이고 경쟁적인 사회분위기에다 부모-자녀 간 일체감이 강해 부모가 자신의 욕구를 자녀를 통해 성취하려 하고, 자녀의 출세나 성공이 자신의 자존심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정은영, 2008). 이러한 부모자녀간의 일체감, 밀착 관계가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면 부모자녀 관계에서 적절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온전한 사랑과 관심을 주고, 자녀는 부모에게서 헌신과 희생,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자녀간의 일체감이 지나치면 아이가 성장하면서 개별화 과정과 자아분화 과정을 통해 하나의 인격체로 자라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가 심리적으로 아이와 분리가 되지 못하여 아이를 더욱 유아적인 수준에서 간섭하고 과잉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자녀는 자율성이 결핍되고 일상생활 자기 관리나 사회 기술 등 아이가 스스로 시행착오를 통해 겪어가고 익혀가며 대처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아를 성장하는데 간섭하고 방해할 하게 되며, 사회 적응을 지연시키는 부정적인 폐해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부모자녀 동일체감으로 설명되는 한국 부모의 특성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불안을 야

기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애착과 양육불안

부모가 자신의 원가족과의 관계 및 경험은 자신의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원가족 부모와의 경험 특히 애착 경험은 현재 자녀와의 애착 관계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가족 내에서 습득한 상호작용 방식이 결혼한 자녀가 이룬 핵가족에서 그대로 반복된다(Kerr & Bowen, 1988).

Brennan, Clark과 Shaver(1998)는 애착과 관련된 성인기 외부 세계 또한 타인 표상을 성인 애착이라 지칭하면서 성인 애착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두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애착 불안은 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몰두하고 거절당하거나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차원을 의미하고, 애착 회피는 친밀해지는 것을 꺼리거나 불편해하는 차원을 의미한다. 두 애착차원 중 어느 차원이 높은지에 따라 지각 수준, 정서표현 방식, 대인관계 패턴 등에서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인다(안하얀, 서영석, 2011에서 재인용). 우선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사소한 위협에도 과민하게 지각할 뿐 아니라 심리적 고통을 과도하게 표현함으로써 애착 대상의 관심을 자신에게로 돌리려는 특성을 보인다(Mikulincer & Florian, 1998; Shaver & Mikulincer, 2002). 반면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기분이나 생각을 알아차리는데 민감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서적 표현을 억누르며, 타인과의 거리를 최대한 유지하여 타인에게 당할 수 있는 거절을 피하려는 특성을 강하게 나타낸다(Fraley & Shaver, 1997; Mikulincer & Orbach, 1995; Shaver & Mikulincer, 2002; Woodhouse & Gelso, 2007). 이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애착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상대방에게 강렬하게 표현하거나 의존함으로써 심리내적, 대인 관계적 문제를 가중시키는 반면, 애착회피가 높은 사

람들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억압하고 위협적인 신호를 인지적으로 통제하는 등의 대처방식으로 선택함으로써 문제를 가중시킬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Mikulincer & Florian, 1998; Shaver & Mikulincer, 2002). 경험적 연구들에서 보면 자신이나 타인, 세상에 대한 표상이 부정적일수록, 즉 성인애착 두 차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하얀, 서영석, 2010, Lopez & Gormley, 2002; Lopez, Mitchell, & Gormley, 2002; Wei, Vogel, Ku, & Zakalik, 2005). Vogel과 Wei(2005) 연구에서 보면, 불안 애착은 심리적 불편감, 도움 추구와 정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회피애착은 자신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부인하고 도움 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불안정애착인 사람은 안정애착인 사람과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지지에 의지하는 경향이 약하고, 다른 사람들로 부터 얻은 지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도 있다(Priel & Shamai, 1995).

애착과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Crowell와 Feladman(1991)는 어머니와 아동의 45쌍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내적 수행 모델과 어머니-자녀 상호작용 행동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안정애착으로 분류된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자녀와 분리시에도 자녀에게 충분한 준비를 시켰으며, 별로 불안해하지 않고 방을 떠났다. 반면 불안정 애착유형 중 거부형 애착으로 분류된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신체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고, 분리시에도 자녀를 준비시키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또 다른 불안정 애착유형 중 하나인 몰입형 애착으로 분류된 어머니들은 아동과 분리되는 것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분리시 지나치게 자녀를 준비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유한익(2004)은 불안정 애착의 형태 중 거부형 애착의 어머니는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요구나 필요에 무관심하여 부모 자녀관계속에

서 ‘무반응성’을 자녀에게 학습시키고 나아가 자녀는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을 학습하게 된다고 하였다. 반면에, 의존형 애착의 어머니는 자존감이나 자기 통제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의 자율적인 탐색을 방해하며 의존성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어 자녀는 관계 속에서 분리되는 것을 불안해하며, 밀착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자녀가 불안과 우울증의 내재화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불안 애착은 우울 뿐만 아니라 불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와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assidy & Shaver, 2008; Wei et al. 2005).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 애착과 불안에 관련한 연구에서 안정적인 부모애착일수록 불안의 수준이 낮았다(김현순, 2005; 조진주, 2008). 이같이 애착 유형에 따라서 자녀양육의 문제를 인식하는 수준이 다르고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우울, 불안 등의 정서 문제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아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아동기와 청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는 Bowlby가 제안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 있다. 즉 양육자에 대한 애착은 아동이 양육자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때의 정서적 경험을 기초로 자기와 애착인물 및 외부 세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내적 작동 모델로 구조화된다는 것이다. 각 개인은 양육자와 반복된 상호작용 경험을 통하여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고 형성된 애착의 내적 작동 모델은 이후 애착 체계의 활성화를 지배하는 역할을 한다(Bowlby, 1969). 즉 영아기에 형성된 부모에 대한 애착은 내적 작동모델의 형태로 계속되고 그것은 후속적 관계 형성 방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애착 형성은 성장한 이후에도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타인 과도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어머니가 지닌 애착의 질적 특성은 자녀와의 애착 형성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장희숙, 1997). 종합해 볼

때, 애착은 불안정서와 상당 부분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원가족과의 애착 문제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4) 양육효능감과 양육불안

부모로서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 믿고 자신의 양육 행동이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는 기대감을 의미하는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양육 능력을 설명하는 주요한 인지적 요인이다(Coleman & Karraker, 2000). 양육에 관한 인지적 요인 중 하나로 연구자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양육 효능감은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경향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인지능력 등을 포함하여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최근 연구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Bornstein, et al. 1998 ; Coleman & Karraker, 1997 ; Dumka, et al. 1996).

현재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척도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양육 효능감을 다루고 있다. Bandura(1997)는 영역에 구분없이 일반적으로 측정된 효능감보다 영역별로 구분하여 측정된 효능감은 개인이 해당 영역에서 가진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한다고 하였다. 이에 Coleman과 Karraker(1997)는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과제별, 영역별, 영역 일반 효능감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과제별(task-specific) 양육 효능감은 구체적인 양육 과제를 부모가 잘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감과 기대감을 의미하며 부모의 효능감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수행 과제는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둘째, 영역별 양육 효능감(domain-specific)은 구체적인 양육 과제를 비슷한 영역으로 묶고 각각의 영역에서 부모가 인지하는 자신감

과 기대감을 의미한다(Coleman & Karraker, 2003). 영역별 양육 효능감의 영역을 예로 들면 자녀와 함께 놀이하는 영역, 자녀를 교육하는 영역, 사랑과 지원을 해주는 영역 등이다(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torelli, 1996; Coleman & Karraker, 2000). 마지막으로 영역 일반 양육 효능감은 자녀 양육의 전반적인 상황과 양육행동에 관하여 부모가 스스로 인지하는 자신감과 기대감을 의미한다(Coleman & Karraker, 2003). 현재까지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다룬 연구 대부분이 이 마지막 영역인 일반 양육 효능감에만 초점을 두고 부모의 효능감을 측정하여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양육에 있어 영역별 양육효능감은 영역 일반 양육 효능감이 예측하지 못하는 아동의 발달적 측면과 사회적 유능감도 예측하였다(Coleman & Karraker, 2003; Izzo, Weiss, Shanahan, & Rodriguez-Brown, 2000; Swick & Hassell, 1992). 부모 양육의 효능감은 문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고 문화에 따라 양육 효능감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다(Bornstein, et al., 1998). 양육 효능감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양육 상황을 고려한 양육 효능감 뿐 아니라 구체적인 과제에 따른 양육 효능감과 문화에 따른 양육 효능감에 차이가 있음을 볼 때, 양육불안 또한 어머니들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양육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도 이와 같이 양육 역할의 과제에 따라 다양하게 경험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신감이 부족하고 부모의 역할에 대한 유능감이 부족하며 부모로서의 정체감이 불확실한 등 부모로서 양육 효능감이 부족한 부모는 자기만의 양육 기준과 방식을 가지고 자신있고 일관되게 양육을 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자신의 양육 방식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지니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 어머니들의 양육 효능감과 관련하여 느끼는 불안감을 살펴보

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문항을 개발하고자 한다.

(5) 사회적 지지와 양육불안

인터넷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들을 인터넷의 검색을 통해 얻는다. 인터넷을 통해 전문적인 병원을 찾고, 양육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며,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들을 부모들의 모임이 있는 동호회에 가입하여 다른 어머니들에게 묻고 조언들을 듣는다. 또한 TV를 통해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동 상담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부모 교육의 강의를 접하며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

부모들은 이러한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전문가의 도움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이란 전문적 원조 체계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상담 및 심리 치료, 정신과 의료진, 사회 사업가 등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전문적 도움 추구 행위는 지각된 문제가 심각할수록 심리 전문기관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높았고(McLemman, 1991), 문제에 대한 개방성이 낮을수록, 감정에 대한 표현에 어려움을 경험할수록 도움 추구행동을 하지 않았다(신연희, 안현의, 2005). 문제 중심적 대처 방식보다 정서 중심적 대처 방식을 추구할수록 도움 추구행동이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에서는 사회적 지지자원의 유용성에 대한 믿음이 부정적일수록 도움추구행동을 하지 않았다(김주미, 유성경, 2002; 서신영, 1999; 신연희, 안현의, 2005; Kelly & Achter, 1995).

이러한 양육 전문가의 전문적인 도움 뿐 아니라 가족, 친구, 이웃의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한 반응을 약화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고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 제거시킬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기능적 측면에서 도구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로 나눌 수 있다. 도구적 지지는 부모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해야 하는 일의 양을 감소시키는 구체적인 도움을 말하며, 재정적 도움, 아기 돌보기 등이 이에 속한다. 정서적 지지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나 가정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 공감, 격려를 표현하는 것이다. 정보적 지지는 살림이나 양육에 대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Crockenberg, 1988; 엄지원, 2011에서 재인용). 시대가 변화해감에 따라 부모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러한 정보적 지지를 얻는다. 이와 같이 부모는 이러한 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에 영향을 받으며 양육을 하게 된다.

그러나 어머니가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다면 자녀 양육에 있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 지지의 가용성이 지각되는 정도인 지지 가용성(support availability)의 지각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조건에 지속적으로 작용한다(Cohen & Will, 1985).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할 수 있다는 점과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하고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하는 측면과 정신과적 증상을 예측할 수 있고 정신질환에 대한 노출에서 보호하는 방패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박지원, 1986). 한국은 점차 핵가족화가 되면서 젊은 부모들은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을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풍부하지 못하고 따라서 자녀 양육에 있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게 인터넷, TV, 부모 교육 강좌, 부모 교육관련 도서 등 양육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양육 정보는 지나치게 범람을 하고 있는 상태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양육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 및 전문적 도움 추구 행위도 변화해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부모가 양육을 하는데 있어 심리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가용성 즉 외적인 사회적 지지체계의 자원이 빈약하다고 느끼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예전에 비해 정보 검색이 용이해지고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빨리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들은 많은 정보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자녀의 기질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문가의 의견을 맹신하거나 심지어 비전문가인 다른 어머니들의 정보들을 사실로 인식하고 자녀에게 적용하는 폐해도 많이 보게 된다. 이처럼 방대하게 넘쳐나는 양육의 정보 속에서 부모들은 더욱 어떠한 방법을 자신의 자녀에게 적용시켜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을 느낀다. 이러한 양육불안은 자녀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전문적인 도움 기관이나 주변의 사회적 지지체계에 더욱 의존하는 등의 양육에 대한 도움 추구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된다.

7) 한국형 양육불안 척도 개발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가 양육시에 경험하는 불안 정서는 아이를 양육하는 행동과 아이의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 병리적인 문제, 학습과 또래관계 등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한국 사회는 핵가족화가 되고 외동딸, 외동 아들이 늘어나면서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온전하게 아이의 양육에 몰두하며 완벽하게 잘 키우고자하는 욕구와 기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녀의 학업 뿐 아니라 사회성, 자존감 등 다양한 영역에 있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잘 키우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적인 변화와 함께 한국 문화의 특성인 관계주의, 체면, 정 그리고 부모자녀간의 동일체감으로 설명되는 한국 부모 자녀관계의 특성과 관련하여서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불안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부모의 원가족과의 애착 문제, 부모의 완벽주의 특성 또한 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특성

과 상황적인 특성, 사회 문화적 특성을 다양하게 고려한 척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 또래관계, 인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부모로부터 분리가 되어 사회적으로 적응이 되어가는 학령 전기와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불안과 관련이 있는 부모의 완벽주의 특성, 양육 효능감, 자녀와의 애착, 한국 사회문화적 특성, 사회적 지지 요인으로 구성된 양육불안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 상담 및 치료 장면에서 부모의 양육불안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양육불안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모 자녀관계 문제, 부부 문제를 다루고 부모 교육과 부모 상담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3.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양육불안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려고 하였다. 우선 예비 연구를 통해, 학령 전기와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개방형질문을 통해 문항을 수집하여 한국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불안의 내용들을 척도에 반영하고, 이와 함께 기존의 양육과 관련된 척도들을 근거로 하여 문항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기존의 불안과 관련된 연구들을 기반으로 구성 요인을 만들고 수집된 문항들을 통해 양육불안에 관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 수집된 문항들을 근거로 연구 2에서 개발된 척도가 부모의 양육불안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공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관련 척도들과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 어머니의 양육불안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 어머니의 양육불안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1. 연구 1에서 개발된 양육불안 척도는 타당한가?

연구 문제 2-2. 연구 1에서 개발된 양육불안 척도와 다른 변인들간의 상관은 어떠한가?

가설 1. 연구 1에서 개발한 양육불안척도와 양육효능감간에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2. 연구 1에서 개발한 양육불안척도와 양육스트레스간에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3. 연구 1에서 개발한 양육불안척도와 양육태도간에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4. 연구 1에서 개발된 양육불안 척도와 특성불안-상태불안 및 우울간에 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 문제 2-3. 정신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와 일반 어머니는 양육불안에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3. 어머니의 자녀 성별, 취업 유무, 상담 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불안에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4.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양육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예비 연구

양육불안 문항 개발

예비 연구의 목적은 양육불안척도의 개발을 위한 예비문항 목록의 수집에 있다. 양육에 있어 어머니가 불안해하는 내용을 개방형 질문형식으로 조사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얻고자 하였고, 기존의 양육불안 관련 문헌들과 척도들을 기반으로 문항을 추출하여 양육불안에 관한 문항을 개발하였다.

1. 연구 절차

1) 경험적 접근을 통한 문항 수집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불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학령기 및 학령 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제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떤 것을 가장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되도록 구체적으로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총 100명에게 배부한 후 총 89부가 수집되었으며, 총 271개의 반응이 수집되었다. 이렇게 얻어진 자료는 내용분석을 통해 일차적 요약을 하였다.

2) 이론적 접근을 통한 문항 개발

기존의 양육불안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추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양육불안에 관한 예비문항들을 고안하였다. 기존의 양육 및 불안과 관련된 문헌 연구들 (Belsky, 1984; Abidi, 1976; Binger, 2006; Lazarus & Averill, 1972; Peurifoy, 2005; Sabine & Steketee, 2006)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양육불안과 관련된 요인

을 ‘부모의 완벽주의, 양육의 효능감, 자녀와의 애착, 자녀와의 동일체감, 사회적 지지’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요인들을 측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문항들을 수집하기 위해 양육불안과 관련된 문헌들을 중심으로 양육불안과 관련된 문항들을 수집하고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불안의 구성요인과 관련된 기존의 ‘완벽주의 척도, 애착, 사회 문화적 특성, 전문가 도움 추구 및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척도들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임시 문항을 고안하였다.

(1) **완벽주의 척도** : Hewitt와 Flett(1991a)의 다차원적인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 MPS)를 한기연(1993)이 번안한 것과 Snell 외(2005)의 다차원적 양육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arenting Perfectionism Questionnaire(MPPQ))를 참고로 양육불안 척도에 맞게 수정하여 문항을 고안하였다. Hewitt와 Flett(1991)의 이론을 바탕으로 양육을 하면서 느끼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타인 즉 자녀지향 완벽주의, 사회지향 완벽주의로 구분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2) **양육 효능감 척도** : Giban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16문항으로 이루어진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신숙재(1997)가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부모 보고를 통한 경험 연구에서 분류된 양육 효능감 요인에 관한 문항을 일부 포함시켰다.

(3) **애착** : Brennan 등 (1998)의 친밀관계 경험 검사인 애착 척도(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s questionnaire : ECR)를 참고하였다. 이 척도는 Fraley 등 (2000)이 개정한 것으로 김성현(2004)이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문항들이다. 성인 애착 척도는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의 2개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참고로 하여 양육불안 척도에

맞게 문항을 고안하였다.

(4) **한국 부모자녀관계** : 방희정 등(2007)이 개발한 관계적 자기 척도와 Hovestadt 외(1985)가 제작한 Family of Origin Scale(FOS)를 최현미(1997)가 한국 가족 정서에 맞게 개발한 원가족 척도를 기반으로 양육불안에 맞게 수정하여 고안하였다.

(5) **사회적 지지** : Fisher와 Turner(1970)이 개발한 도움 추구 척도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 : ASPPH)를 참고로 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2. 연구 대상

학령 전기와 학령기 자녀는 양육적 개입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이고, 자녀의 학업, 사회성, 건강, 자기 개념 등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관심이 필요하고 개입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학령 전기와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부모의 자유 반응형 질문을 통해 부모의 불안 내용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자녀를 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소아 정신과에 내원한 어머니 38명, 아버지 8명과 자녀에 대한 상담 및 치료 경험이 없는 일반 어머니 38명, 아버지 5명을 대상으로 문항을 수집하였다.

3. 분석 방법 및 결과

수집한 문항들 중 반복되는 문항은 삭제하였고 연구자가 선정한 요인을 기

반으로 문항을 추출하였다. 또한 부모 반응을 통한 문항들과 기존 척도들을 수정한 문항들을 종합하여 연구자가 최종 82개의 예비 문항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예비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아동 상담 전문가 및 임상심리전문가 6인에게 예비 문항을 보여주고 각 문항이 각 요인의 구성개념에 적합한지, 각 요인을 명료하게 측정하는지, 문장이 간결하고 명확한지, 문장이 이해하기 쉬운지, 표현이 적절한지를 평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를 거쳐 최종 60개의 문항이 예비문항으로 선정되었다.

Ⅲ. 연구 1

양육불안 척도의 탐색적 요인 분석

1. 연구 절차

연구자가 기존의 문헌들을 근거하여 문항들을 수정, 개발하였고 Likert 5점 척도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양소호(2011) 연구에서 4점 척도, 5점 척도, 6점 척도, 7점 척도 반응 범주를 비교한 결과, 5점 척도 혹은 6점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4점 척도와 7점 척도를 사용할 때보다 더 좋다는 결과에 따른 것이다. 부모들을 대상으로 선정된 문항들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유치원(만 3세 이상),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문항을 배부하였다. 유치원 원장 선생님과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그리고 다른 여러 어머니들에게 연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연구 동의서와 함께 문항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연구자의 예비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기에 앞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배부하고 연구에 동의하는지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함께 배부된 봉투에 따로 넣어 봉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설문지를 작성하기 전에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총 460부 배부하였고, 총 398부가 수거되었다.

수거된 문항을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고,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를 연구자를 포함하여 아동심리 전문가 및 임상심리 전문가 4명을 통해 요인이 적합하게 분류가 되었는지, 삭제가 필요한지, 요인결과가 적합한지, 요인 이름은 적절히 명명되었는지를 묻는 설문을 배부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수집된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내용 타당도를 실시한 후, 요인 제목을 명명하고 적절한 문항과 요인을 최종 선별하였다.

2. 연구 대상

유치원(만 3세 이상),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문항을 배부하였고 총 398명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이 중 무성의하거나 중학교 대상으로 한 자료는 제외하였다. 자녀가 여러 명 있는 어머니의 경우 한 자녀를 정하여 문항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에 포함된 어머니의 유치원생 자녀는 총 121명, 초등학교 자녀는 총 277명이었고, 이 중 남자는 197명, 여자는 194명(결측값 7명)이었다.

표 4.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398)

변인	구분	대상자수	백분율(%)
자녀 연령	3	5	1.3
	4	16	4.0
	5	26	6.5
	6	34	8.5
	7	40	10.1
	8	48	12.1
	9	38	9.5
	10	73	18.3
	11	47	11.8
	12	50	12.6
	13	20	5
	무응답	1	.3

	미취학	121	30.4
자녀 연령	1학년	50	12.6
	2학년	37	9.3
	3학년	73	18.3
	4학년	48	12.1
	5학년	48	12.1
	6학년	21	5.3
자녀 양육 상담유무	있음	81	20.4
	없음	316	79.4
	무응답	1	.3
자녀 성별	남아	197	49.5
	여아	194	48.7
	무응답	7	1.8
자녀수	1	68	17.1
	2	283	71.1
	3	42	10.6
	4	2	.5
	5	1	.3
	무응답	2	.5

유치원과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예비 문항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자녀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자녀의 연령은 3세부터 7세까지의 유치원 아동과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398명의 대상 중에 자녀 양육에 관해 대학 병원과 개인 병원, 아동 상담소를 내원하여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어머니는 81명으로 전체 20.4%에 해당하였다. 자녀수는 두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283명으

로 가장 많았고 전체 71.1%에 해당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기술 통계와 요인 분석에 대한 검증으로 SPSS 20.0과 M-plus 7.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SPSS 20.0을 사용하여, KMO와 Bartlett의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주축 요인 추출 방식을 사용하였고 회전방식은 직접 오블리민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목록별 결측값은 제외하였다. 그 다음으로 M-plus 7.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행선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고 회전방식은 직접 오블리민 방식을 실시하였다. 평행선 분석에 있어서 SPSS보다 M-plus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M-plus를 사용하였다(Hayton, Allen, & Scarpello, 2004; Horn, 1965 ; Hayton). 요인 부하량 행렬은 SPSS를 사용하여 형태 행렬(pattern matrix)을 보았다. 이 과정에서 부하량이 .40이상인 문항을 선정하였고 연구자를 포함하여 임상심리전문가 6인을 통해 최종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도록 하였다.

4. 연구 결과

문항 분석을 통해 변별된 양육불안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육 척도의 Cronbach's α 는 .97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예비 양육불안 척도는 모두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양육불안 척도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96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5154.775
	자유도	1770
	유의확률	0.000

분석 결과 표 5에 제시한 바처럼, KMO 값이 .962로 1에 가깝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6. 양육불안 척도 고유값 및 평행선 분석

	양육불안 척도 고유값	분산 비율	누적 분산비율	평행선 분석 고유값(95%)
1	17.165	40.047	40.04	1.931
2	2.694	4.850	44.897	1.829
3	2.053	3.688	48.585	1.767
4	1.821	3.111	51.697	1.712
5	1.714	3.011	54.707	1.666
6	1.480	2.388	57.095	1.622
7	1.292	2.151	59.247	1.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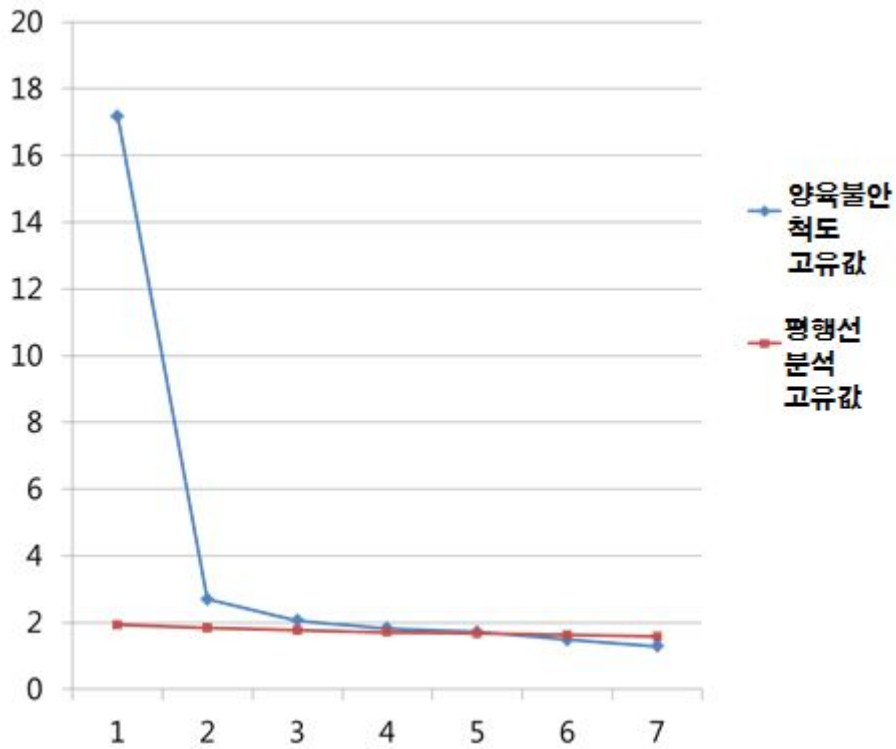


그림 2. <스크리 도표> 양육불안 척도 고유값 및 평행선 분석 고유값

표 6과 <스크리 도표>를 보면 양육불안 척도의 고유값이 평행선 분석의 고유값보다 5요인까지 높고, 6요인부터는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요인은 5요인으로 나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평행선 분석에서는 평행선 분석을 통해서 나온 고유값보다 분석 자료의 고유값이 높은 요인 수만큼 요인이 있다고 결정한다.

양육불안 척도의 요인 부하량을 보여주는 표 7에서 ‘부모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자녀와의 애착으로 인한 불안,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자녀에 대한 염

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의 5요인으로 묶였으며, 이 요인이 양육불안 중 양육불안을 설명하는 설명량은 54.707%였다. 이상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번호	요인				
	1	2	3	4	5
6	.583	.149	-.010	.047	.002
17	.421	.273	.067	.187	-.140
19	.488	.198	.133	.066	-.142
21	.754	.212	-.105	-.050	-.059
22	.571	.125	.312	-.120	-.027
23	.554	.009	.282	-.001	.052
25	.839	-.073	.084	.051	-.089
26	.669	.110	.231	-.126	-.110
27	.896	-.215	-.024	.029	.016
28	.980	-.117	.007	-.073	-.008
29	.593	.038	.272	-.036	.031
30	.544	.114	.351	-.078	-.084
42	.442	.115	.017	.175	.029
43	.651	.033	-.091	.196	.050
44	.425	-.016	.182	.218	.008
46	.379	.320	-.115	.094	-.019
47	.592	.161	-.106	.074	.127
48	.473	-.038	-.157	.222	.281
50	.453	.324	-.033	-.019	.017
51	.383	.275	.345	-.109	-.061

53	.799	-.305	.167	.107	.028
7	.146	.447	-.149	.432	-.228
14	.032	.363	.229	-.108	.244
33	-.016	.400	.290	.133	-.098
54	-.173	.612	.115	.232	-.142
55	-.102	.707	-.054	.220	-.094
56	-.101	.632	.181	.127	.039
57	.172	.353	-.031	-.001	.145
58	.256	.560	-.006	-.085	.034
49	.153	.543	.045	-.048	.044
59	.071	.573	.132	-.051	.089
60	-.112	.656	.104	-.152	.198
24	.177	.047	.582	.057	-.067
32	.213	.080	.460	.048	-.006
35	.144	-.159	.609	.132	.035
36	-.033	.083	.809	.040	-.117
38	-.060	.165	.724	.016	.003
2	.000	.006	.194	.648	-.125
3	.181	.235	-.155	.521	.033
4	.007	-.237	.197	.678	.165
8	.120	.011	.040	.578	.102
39	.052	.266	-.031	.351	.000
40	.143	.157	-.300	.574	.124
41	-.225	.141	.166	.626	.145
45	-.015	.162	.254	.411	.090
1	-.185	-.027	-.025	.237	.423
4	-.179	-.060	-.033	.261	.506
9	.228	-.152	-.191	-.004	.409

10	-.073	.119	.078	.144	.502
11	.222	-.158	.164	.406	.182
12	.142	.189	-.034	.010	.452
13	.219	.211	-.300	.052	.348
15	-.053	.099	.114	-.234	.805
16	.154	.005	.207	.114	.434
18	.275	.371	.111	.097	.022
20	.353	.358	-.123	-.015	.029
31	-.059	.336	.128	.327	-.044
34	.259	.274	.263	.009	-.004
37	.365	.079	-.052	-.136	.259
52	.035	.028	.281	.321	.205

탐색적 요인 분석 후 SPSS로 형태 행렬을 살펴본 결과, 이 과정에서 요인 부하량이 .4이상인 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런 다음 요인 부하량이 .4 이상이지만 여러 요인에서 중복되어 부하량이 높은 문항은 삭제하였고, 요인의 설명을 높이기 위해 해당 요인에 적합하지 않는 문항은 여러 전문가의 내용타당도의 검증 후에 삭제하였다. 그 결과, 총 60개의 예비 문항에서 총 26문항으로 최종 문항이 선정되었다.

표 8. 양육불안척도 최종 문항 내용 및 요인 부하량

요인	번호	문항	요인				
			1	2	3	4	5
요인 1 부모	1	나는 부모로써 아이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지 못할까봐 걱정이 된다.	.980	.007	-.073	-.117	-.008

역할 효능감으 로 인한 불안 (6문항)	6	나는 내 아이가 나의 모자란 부분 을 닳을까봐 걱정이다.	.799	.167	.107	-.305	.028
	11	나는 내가 양육을 잘 하고 있는지 불안하다.	.754	-.105	-.050	.212	-.059
	15	아이의 문제는 모두 내 양육의 잘 못인 것 같아 불안하다.	.651	-.091	.196	.033	.050
	20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내 책임인 것 같은 부담감에 불안하다.	.592	-.106	.074	.161	.127
	24	내가 잘 하지 못해서 경험했던 괴 로움을 아이도 겪을까봐 걱정된다.	.442	.017	.175	.115	.029
요인 2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 (5문항)	2	나는 나의 부모님에게 따뜻하거나 지지를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내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불편하다.	-.033	.809	.040	.083	-.117
	7	나의 부모님은 나의 생각이나 감정 을 무시하고 수용해주지 않는 편이 어서, 나도 아이가 나에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불 편하다.	-.060	.724	.016	.165	.003
	12	나는 아이가 나에게 의존하려고 하 면 불편하다.	.144	.609	.132	-.159	.035
	16	나는 아이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라기보다 자꾸 챙기고 도와주 어야하는 존재로 느껴져 부담스럽 고 두렵다.	.177	.582	.057	.047	-.067
	21	나의 부모님은 나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을 존중해주지 않는 편이 어서, 나도 자녀를 존중해주지 않을 까봐 걱정된다.	.213	.460	.048	.080	-.006
요인 3	3	아이가 내 기준에 맞지 않아 다그 치게 된다.	.007	.197	.678	-.237	.165

자녀에 대한 염려 (5문항)	8	나는 아이가 남들만큼 잘 하지 못 하면 뒤떨어진 사람이 될 것 같다.	.120	.040	.578	.011	.102
	17	아이가 잘못하면 내가 더 마음이 쓰인다.	.143	-.300	.574	.157	.124
	22	나는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평가를 받을까봐 불안하다.	.181	-.155	.521	.235	.033
	25	내 아이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불안하다.	.052	-.031	.451	.266	.000
요인 4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 (4문항)	4	양육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 움을 받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112	.104	-.152	.656	.198
	9	내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양육에 관해 신뢰롭고 유용한 도움을 주지 못하여 불안하다.	-.101	.181	.127	.632	.039
	13	양육에 관해 육아 서적, 인터넷, 상 답에 항상 의존하여도 불안하다.	.071	.132	-.051	.573	.089
	18	가까운 곳에 양육에 도움을 받을 만한 전문 기관이 많지 않아서 불 안하다.	.256	-.006	-.085	.560	.034
요인 5 완벽주의 로 인한 불안 (6문항)	5	주변 사람들은 내가 부모로서 완벽 주의 성향이 있다고 한다.	-.053	.114	-.234	.099	.805
	10	나는 아이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 지고 있다.	-.179	-.033	.261	-.060	.506
	14	나는 주변에서 아이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073	.078	.144	.119	.502
	19	나는 아이가 모든 면에서 뛰어나게 잘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매사 불안하다.	.154	.207	.114	.005	.434

23	나는 양육을 할 때 부모로서 매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185	-.025	.237	-.027	.423
26	나는 부모로서 꼭 성공해야만 한다.	.219	-.300	.052	.211	.420

표 8은 내용타당도의 분석 결과 후 최종 문항이다.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 을 통해 5요인에 대한 이름을 명명하였다.

양육불안 척도의 요인 1은 ‘부모 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1은 양육을 하는데 있어 부모로서 자신감이 부족하고 부족한 자신을 자녀가 닮을까봐 염려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모로서의 역할의 과도한 책임감, 자녀와의 지나친 밀착관계, 부모 역할에 있어 효능감이 부족함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감을 측정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 문항에서 부모 역할 효능감과 한국 부모 자녀관계를 반영하는 밀착관계에 관한 문항이 1요인으로 같이 묶였는데, 부모의 양육에 대한 태도와 신념을 측정하는 효능감 요인에 한국 어머니들의 밀착관계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요인 2는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양육을 하는데 있어 원가족과의 애착 형성과 자아 분화 수준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의 원가족과의 관계가 현재 자녀의 양육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자녀와의 애착 형성에 있어서 느끼는 불안감을 측정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3은 ‘자녀에 대한 염려’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자녀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고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평가를 받을지, 자신의 자녀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같은지 등 자녀에 대한 염려감을 측정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4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양육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만한 대상이 부재하고 양육에 있어서의 도움이 있어도 이러한 양육적인 도움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함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5는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5는 자신의 양육에 있어서의 완벽주의 성향과 다른 사람이 자신이 완벽하기를 기대하는지를 측정하고 이러한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높은 기준을 가짐으로써 느끼는 불안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IV. 연구 2

양육불안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화 연구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개발한 요인구조의 안정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 스트레스, 양육 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공인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1. 연구 대상

연구 2는 연구 1의 요인구조가 다른 대상에게도 적합한지 살펴보기 위해 연구 1과 다른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1은 3세 이상의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와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 4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소아 정신과에 내원한 어머니에게 이 설문지를 480부 배부하고 수거한 결과 성실하게 회수된 설문지 중 성실하게 답변된 421부를 사용하여 양육불안에 관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9.24세(*SD* 4.2)이었다.

표 9. 연구 대상자 자녀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대상자 수	백분율(%)
자녀 성별	남	226	53.7
	여	191	45.4
	무응답	4	1.0

	3	7	1.7
	4	24	5.7
	5	30	7.1
	6	38	9.0
	7	32	7.6
자녀 연령	8	102	24.9
	9	24	5.7
	10	31	7.4
	11	88	20.9
	12	21	5.0
	13	16	3.8
	무응답	5	1.2
		미취학	133
학년	1	106	25.2
	2	23	5.5
	3	28	6.7
	4	93	22.1
	5	17	4.0
	6	18	4.3
	무응답	3	.7
자녀수	한 명	112	26.6
	두 명	249	59.1
	세 명	54	12.8
	네 명	4	1.0
	무응답	2	.5
진단유무 (중복응답)	ADHD	34	8.1
	우울증	5	1.2
	불안증	24	5.7
	사회성 문제	20	4.8
	언어발달지연	29	6.9
	지적 장애	7	1.7

자폐성 장애	8	1.9
부모자녀 관계 문제	9	2.1
발달 지연	13	3.1
기타	5	1.2
없음	319	75.8
무응답	1	.2

연구 2는 표 9에 나타난 바처럼, 연구 대상자 자녀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아 226명, 여아 191명이었고, 자녀수는 두 명 자녀를 둔 어머니가 249명(59.1%)으로 가장 많았다. 소아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는 적이 없는 어머니는 319명(75.8%)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다중응답으로 위와 같은 진단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표 10. 연구 대상자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대상자 수	백분율(%)
직업	주부	232	55.1
	회사원	48	11.4
	공무원	22	5.2
	전문직	51	12.1
	자영업	19	4.5
	판매 및 서비스직	16	3.8
	아르바이트	13	3.1
	기타	18	4.3
	무응답	1	.5
	학력	고등학교 졸업	115
전문대 졸업		103	24.5
대학교 졸업		157	37.3
대학원 졸업		42	10.0

	기타	3	0.7
	무응답	1	.2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3	.7
	100~200만원	26	6.2
	200~300만원	71	16.9
	300~400만원	119	28.3
	400만원 이상	192	45.6
	무응답	10	2.4
양육상담 유무	있다	105	24.9
	없다	315	74.9
	무응답	1	0.2

연구 대상자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어머니의 직업은 주부가 232명(55.1%)으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대졸이 37.3%로 가장 많았다. 평균 소득은 400만원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45.6%로 가장 많았고, 양육 상담을 받는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있다’라고 답한 어머니가 105명(24.9%)으로 나타났다.

2. 측정 도구

1) 양육불안 척도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임상심리전문가의 내용타당도를 통해 선정된 최종 26문항의 양육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양육불안 척도는 하위요인은 부모 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한 염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다음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양육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양육효능감 척도

준거 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양육 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Giban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16문항으로 이루어진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신숙재(1997)가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효능감(9문항)과 정서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4문항)의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부정문으로 된 2문항(역채점 문항: 9, 10)이 역으로 채점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부모 역할 효능감(인지적 차원)은 .850, 부모로서의 좌절 및 불안감(정서적 차원)은 .790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차원에서 부모 역할에 대한 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역할에 대한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며, 이와 반대로 정서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좌절 및 불안감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서 좌절 및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3) 양육스트레스 척도

Abidin(1990)이 제작한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신숙재(1997)가 번역한 척도로 사용하였다. PSI는 부모-자녀 체계의 역기능적 측면이나 부모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을 밝히고자 개발된 부모용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부모 영역과 자녀영역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01개의 문항 가운데 부모 영역은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신숙재(1997)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를 통해 적절하지 못한 문항과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모

두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양육스트레스의 측정 도구는 하위요인별로 ‘일상적 스트레스’ 10문항,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8문항,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9문항, 그리고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3문항으로 구성되며 총 30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30-150점이다. 이중 6문항이 역으로 채점된다(역채점 문항 : 11, 12, 13, 20, 21, 23).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885,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773,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805로 높게 나타났다.

4) 양육태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Schaefer(1959)의 MBRI 양육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이원영(1983)이 번안한 것을 최유경(1999)이 재수정한 부모 보고형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태도(12문항), 거부적 태도(12문항), 자율적 태도(12문항), 통제적 태도(12문항)로 구분하고 있으며,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애정적 태도 .822, 거부적 태도 .851, 자율적 태도 .719, 통제적 태도 .635로 나타났다.

6) 상태-특성불안 척도

부모의 불안 수준을 평가하고 개발된 양육불안 척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pielberger(1970)에 의해 개발된 상태특성 불안 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사용하였다. 김정택(1978)이 한국 상황에 맞게 번

안하여 표준화작업을 하였다. STAI는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ATAI-S), 특성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STAI-T)의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에게 가깝다고 해당되는 쪽에 응답하는 4점 Likert 척도이다. 상태불안에서 10문항(1,2,5,7,10,11,15,16,19,20), 특성불안에서 7개 문항(1,6,7,10,13,16,19)이 역채점되며, 총점은 각각 최저 20점에서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특성불안은 .916, 상태 불안은 .951로 나타났다.

7) 우울척도

이 척도는 Beck, Ward, Mendelson, Mock와 Erbaugh(1961)이 우울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그리고 생리적 영역을 포괄한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총 21문항의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 이 척도는 우울의 정도에 따라 기술되어 있는 4개의 문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4점 척도이며, 각 문항마다 0점에서 3점까지의 점수가 주어지므로 총점은 0점에서 63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우울수준을 나타낸다. 신민섭(신민섭 외, 1993)의 연구에서 기저울을 50:50으로 상정한 경우 16점을 분할점으로 보고 있고, 기저울을 70:30으로 상정하였을 때는 22점이 우울증과 정상집단을 분류하는 분할점인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7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연구 1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가 다른 집단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연구 1 표집에 국한된 결과인지 검토하기 위해 M-plus를 사

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SPSS를 사용하여 양육불안과 양육 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양육 행동 척도와 의 상관 분석을 하여 공인 타당도를 확인하였고, 어머니의 양육불안 특성에 따른 반응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양육불안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1) 양육불안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 분석모형을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용한다. 따라서 확인적 요인 분석은 연구자가 이론을 바탕으로 설정한 요인모형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새롭게 개발한 척도의 타당도 검사에도 사용된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밝혀진 측정모형이 다른 집단에서도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고 본 척도의 요인구조모형을 재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내적 구조에 기초한 근거인 구인 타당도(Construct validity) 검증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앞의 연구 1 결과에서 양육불안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전문가의 내용타당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5요인, 26문항이 선정되었고 이러한 요인 구조가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모형 적합도지수의 선정 기준에 대한 연구 결과(홍세희, 2000)을 고려하여 χ^2 값과 함께 RMSEA, CFI와 TLI 등의 다양한 적합도지수를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CFI와 TLI값 .90이상이 좋은 적합도라 할 수 있고, 절대지수인 RMSEA의 값이 .10이하인 경우에 수용할 만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Kline, 200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RMSEA은 .5이

하면 좋은 적합도, .5~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하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라고 할 수 있다(Browne & Cudeck, 1993).

양육불안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양육불안 척도의 적합도를 고려했을 때, RMSEA=.057로 괜찮은 적합도라고 할 수 있다. TLI와 CFI값 또한 .9에 근접하기 때문에 양호한 모형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이학식, 임지훈, 2008).

표 11. 양육불안 척도의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적합도	χ^2 (유의 확률)	df	RMSEA	TLI	CFI
검증모형	753.934 (0.000)	294	.057	.886	.897

양육불안 척도의 잠재 변인과 측정변인의 추정계수는 부록 4에 제시하였다. 부록 4에 제시한 바처럼, 고유 변량 중 0보다 작게 도출되는 부적절한 추정치가 없으며, 추정치의 부호와 크기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정치들의 *p*값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볼 수 있었다.

2) 양육불안척도의 신뢰도

양육불안척도는 부모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한 염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의 총 5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차원의 문항수와 평균 및 표준 편차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각 하위 척도의 내적 일치도를 확인해 본 결과,

부모 역할 효능감 .87, 자녀와의 애착관계 .81, 자녀에 대한 염려 .78, 사회적지지 .75, 부모자신에 대한 완벽주의 .78로 각각 나타났다.

표 12. 양육불안 척도의 신뢰도, 평균 및 표준편차

척도	내적일치 도	평균	표준편차
부모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87	2.79	.82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	.81	2.07	.69
자녀에 대한 염려	.79	2.74	.73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	.75	2.13	.65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78	2.57	.65
전체	.93	2.49	.59

3) 양육불안 척도 하위요인간 상관

표 13. 양육불안 척도의 하위 요인간 상관(n=421)

하위 요인	1	2	3	4	5
1. 부모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2.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	.630***				
3. 자녀에 대한 염려	.763***	.611***			
4.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	.653***	.619***	.628***		
5.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547***	.421***	.594***	.515***	
양육불안 전체	.894***	.785***	.879***	.798***	.754***

*** $p < .001$.

양육불안척도의 5개 요인간 상호상관행렬을 표 13에 제시하였고 모든 하위 척도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13에 제시되어 있는 바처럼, 양육불안척도의 하위요인간에 .42~.76 사이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어 서로 관련성이 있지만 구분되는 구성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육불안 전체와 하위 요인별 상관은 .75~.89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육불안의 하위 요인은 양육불안 척도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양육불안과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

앞서서 어머니의 양육불안척도에 대한 내적 구조를 확인함으로써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외적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인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1) 양육불안과 양육효능감과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양육효능감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4에 제시하였다.

표 14에서 나타난 바처럼, 양육불안과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간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하였다. 즉 양육불안의 하위 요인은 양육효능감 척도의 양육효능감 척도 중 양육역할 효능감 요인과 부적 상관을 보여 양육불안이 높을수록 양육 역할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로서의 좌절 및 불안감 요인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육불안이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좌절 및 불안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양육불안과 양육 효능감간의 상관관계(n=421)

하위 요인	양육 역할 효능감 -인지적 차원	부모로서의 좌절 및 불안감-정서적 차원
부모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480***	.723***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	-.505***	.612***
자녀에 대한 염려	-.412***	.686***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	-.391***	.513***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151***	.472***

*** $p < .001$.

(2) 양육불안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양육스트레스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5에 제시하였다.

표 15. 양육불안과 양육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n=421)

하위 요인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학습 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부모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452***	.472***	.432***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	.523***	.576***	.423***
자녀에 대한 염려	.528***	.458***	.535***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	.388***	.425***	.357***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260***	.211***	.174***

*** $p < .001$.

표 15에 나타난 바처럼, 양육불안과 양육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불안과 양육 스트레스간의 상관은 .17~.57로 나타나고 있어,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불안과 다른 구성 개념임을 시사한다.

(3) 양육불안과 양육태도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양육태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6에 제시하였다.

표 16에 나타난 바처럼, 양육불안의 하위요인과 양육 태도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불안의 하위 요인은 대부분 애정적 태도, 자율적 태도와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고, 거부적 태도, 통제적 태도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16. 양육불안과 양육태도간의 상관관계(n=421)

하위 요인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
부모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236***	.618***	-.217***	.160***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	-.419***	.634***	-.283***	.089
자녀에 대한 염려	-.257***	.637***	-.317***	.246***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	-.183***	.457***	-.230***	.083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065	.405***	-.120*	.347***

* $p < .05$. ** $p < .01$. *** $p < .001$.

(4) 양육불안과 우울, 불안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우울, 불안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7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양육불안의 하위요인과 우울, 불안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표 17. 양육불안과 우울, 불안간의 상관관계(n=421)

하위 요인	우울증척도	특성불안	상태불안
부모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477***	.548***	.484***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	.391***	.470***	.421***
자녀에 대한 염려	.401***	.460***	.401***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	.323***	.370***	.348***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225***	.259***	.239***

*** $p < .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불안의 하위 요인 모두 우울증 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고, 특성불안과 상태불안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5) 자녀의 정신장애 진단 유무에 따른 양육불안의 차이

어머니의 양육불안 척도의 하위 요인이 집단간의 차이를 통해 검증하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정신장애로 진단을 받는 자녀를 둔 어머니와 진단을 받지 않는 자녀를 둔 어머니와의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정신장애로 진단을 받지 않는 집단과 자녀가 ADHD, 우울증, 불안증, 사회성 문제, 언어발달 지연,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부모-자녀관계, 발달 지연으로 진단을 받는 어머니들 간의 양육불안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1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녀가 정신장애로 진단을 받는 어머니와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어머니간의 양육불안에 있어서 부모 역할의 효능감과 자녀와의 애착관계, 자녀에 대한 염려, 사회적 지지로 인한 불안감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정신장애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어머니가 양육불안의 하위요인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자녀가 진단을 받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서 불안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자녀의 진단의 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불안 수준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유용한 척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8. 자녀의 정신장애 진단 유무에 따른 양육불안의 차이 검증($n=420$)

하위 요인	정신장애진단 유($n=101$)	정신장애진단 무($n=319$)	t
	$M(SD)$	$M(SD)$	
부모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3.07(.77)	2.71(.82)	-3.975***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	2.35(.68)	1.98(.67)	-4.768***
자녀에 대한 염려	3.00(.62)	2.66(.74)	-4.674***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	2.28(.64)	2.08(.65)	-.371**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2.60(.67)	2.57(.65)	-3.905

** $p < .01$. *** $p < .001$.

6) 양육불안에 대한 어머니 반응 분석 차이

(1) 자녀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 양육불안의 차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불안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9에 제시하였다.

표 19. 자녀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 양육불안의 차이 검증($n=417$)

하위 요인	자녀 성별	자녀 성별	<i>t</i>
	남아($n=226$)	여아($n=191$)	
	<i>M(SD)</i>	<i>M(SD)</i>	
부모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2.82(.83)	2.76(.81)	.695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	2.09(.70)	2.03(.68)	.882
자녀에 대한 염려	2.82(.74)	2.63(.71)	2.532*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	2.14(.65)	2.10(.65)	.754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2.54(.69)	2.60(.60)	-.947

* $p < .05$.

표 1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불안 차이를 보면, 대부분의 요인에서 자녀의 성별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 자녀에 대한 염려로 인한 불안감 요인에서만 남아와 여아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즉, 여아보다 남아를 둔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염려감으로 인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른 양육불안 차이 검증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양육불안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차이 검증을 하였다. 전업 주부와 직업이 있는 어머니의 불안 차이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다음 표 20에 제시하였다.

표 20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업 주부와 취업 모간의 양육불안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양육불안의 하위 요인 중 자녀와의 애착관계와 자녀에 대한 염려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전업 주부인 어머니가 자녀와의 애착관계, 자녀에 대한 염려로 인한 불안감이 취업모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표 20. 취업 유무에 따른 양육불안 차이 검증($n=401$)

하위 요인	직업유무 전업주부 ($n=232$)	직업유무 취업모 ($n=169$)	t
	$M(SD)$	$M(SD)$	
부모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2.87(.83)	2.71(.79)	1.940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	2.16(.70)	1.96(.65)	2.907**
자녀에 대한 염려	2.84(.71)	2.61(.73)	3.135**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	2.16(.65)	2.09(.65)	1.144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2.56(.68)	2.59(.612)	-.428

** $p < .01$.

(3) 어머니의 상담 및 치료 유무에 따른 양육불안 차이

어머니가 상담 및 치료를 받기 위해 전문 기관을 내원한 적이 있는지의 유무에 따른 양육불안의 차이를 검증하였고, 이를 표 21에 제시하였다.

표 21. 상담 및 치료 유무에 따른 양육불안차이 검증($n=420$)

하위 요인	상담 및 치료 유($n=105$)	상담 및 치료 무($n=315$)	t
	$M(SD)$	$M(SD)$	
부모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3.09(.83)	2.70(.79)	4.294***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	2.39(.72)	1.96(.64)	5.659***
자녀에 대한 염려	2.97(.67)	2.66(.73)	3.821***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	2.26(.66)	2.08(.64)	2.372*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2.56(.71)	2.58(.63)	-0.346
-------------	------------	------------	--------

* $p < .05$. ** $p < .01$. *** $p < .001$.

7) 양육불안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표 22. 애정적 태도에 대한 양육불안의 중다회귀분석($n=420$)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 오차	β	t	유의 확률	공차 한계
애정적 태도	부모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042	.012	.167	.867	.346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	.042	-.475	-7.731	.000***	.511
	자녀에 대한 염려	.048	-.135	-1.811	.071	.347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	.046	.108	1.682	.093	.470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040	.153	2.717	.007**	.607
$R=.448, R^2=.201, \text{수정된 } R^2=.191,$ $F= 20.824, p=.000, \text{Durbin-Watson}=1.952$						

** $p < .01$. *** $p < .001$.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양육불안을 독립변인으로 양육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양육불안과 애정적 태도의 상관관계는 .45로 나타났다. 또한 애정적 태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자녀와의 애착으로 인한

불안($\beta=-.475, p=.001$),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beta= .153, p=.01$)으로 나타났고, 양육불안이 애정적 태도에 대한 설명량은 20%이었다. 즉 양육불안 하위요인 중 자녀와의 애착관계로 인한 불안감은 애정적 양육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 자신에 대한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감은 애정적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거부적 태도에 대한 양육불안의 중다회귀분석($n=420$)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 오차	β	t	유의 확률	공차 한계
거부적 태도	부모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038	.214	3.692	.000***	.346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	.037	.377	7.917	.000***	.511
	자녀에 대한 염려	.042	.314	5.424	.000***	.347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	.041	-.113	-2.277	.023*	.470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036	.002	.037	.971	.607

$R=.721, R^2=.520, \text{수정된 } R^2=.514,$
 $F= 89.632, p=.000, \text{Durbin-Watson}=2.078$

* $p < .05$. ** $p < .01$. *** $p < .001$.

표 2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양육불안과 거부적 태도의 상관관계는 .72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거부적 태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부모 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beta= .214, p=.001$),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beta= .377, p=.001$), 자녀

에 대한 염려($\beta = .314, p = .001$),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beta = -.113, p = .05$)로 나타났다. 양육불안이 거부적 태도에 대한 설명량은 52%이었다. 즉 양육불안 하위요인 중 부모 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감과 자녀와의 애착관계로 인한 불안감, 자녀에 대한 염려감으로 인한 불안감은 거부적 양육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불안감은 거부적 양육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자율적 태도에 대한 양육불안의 중다회귀분석($n=420$)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 오차	β	t	유의 확률	공차 한계
자율적 태도	부모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038	.118	1.512	.131	.346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	.038	-.167	-2.605	.010*	.511
	자녀에 대한 염려	.043	-.342	-4.390	.000***	.347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	.041	-.048	-.714	.476	.470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036	.114	1.931	.054	.607

$R = .357, R^2 = .127, \text{수정된 } R^2 = .117,$
 $F = 12.095, p = .000, \text{Durbin-Watson} = 1.896$

* $p < .05$. ** $p < .01$. *** $p < .001$.

표 2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양육불안과 자율적 태도의 상관관계는 .357을 보였다. 또한 자율적 태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자녀와의 애착으로 인한 불안(β

=-167, $p=.05$), 자녀에 대한 염려($\beta=-.342$, $p=.001$)로 나타났고, 양육불안이 자율적 태도에 대한 설명량은 13%이었다. 즉 양육불안 하위요인 중 자녀와의 애착관계에 대한 불안감과 자녀에 대한 염려감으로 인한 불안감은 자율적 양육 태도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통제적 태도에 대한 양육불안의 중다회귀분석($n=420$)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 오차	β	t	유의 확률	공차 한계
통제적 태도	부모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035	-.058	-.755	.451	.346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	.035	-.054	-.844	.399	.511
	자녀에 대한 염려	.039	.213	2.767	.006**	.347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	.038	-.164	-2.488	.013*	.470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033	.360	6.186	.000***	.607

$R= .387$, $R^2= .150$, 수정된 $R^2= .139$,
F= 14.575, $p=.000$, Durbin-Watson=1.896

* $p < .05$. ** $p < .01$. *** $p < .001$.

표 2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양육불안과 통제적 태도의 상관관계는 .39을 보였다. 또한 자율적 태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자녀에 대한 염려($\beta=.213$, $p=.001$),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beta=-.164$, $p=.05$),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beta=.360$,

$p=.001$)로 나타났고, 양육불안이 자율적 태도에 대한 설명량은 15%이었다. 즉 양육불안 하위요인 중 자녀와의 애착관계, 부모 자신에 대한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감은 통제적 양육태도와 정적 영향을 보였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불안감은 통제적 양육태도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 전기와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양육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이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양육불안에 관한 문항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경험 연구와 기존 척도를 기반으로 문항을 수집하는 예비연구를 하였고, 연구 1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연구 2에서는 확인적 요인 분석과 다른 변인간의 상관을 통해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1) 어머니의 양육불안 척도 개발

예비 연구에서는 기존에 양육불안에 관한 척도가 부재하여 문항 개발을 위해 어머니를 대상으로 경험 연구를 하였다. 우리나라 부모를 대상으로 자유반응형의 질문을 통해 양육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불안의 내용들을 수집하였다. 자녀의 정신장애 치료를 위해 소아정신과에 내원한 부모와 정상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문항을 수집하였다. 또한 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하여 문헌 연구들을 기반으로 기존의 척도를 수정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연구자가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양육에 대한 태도, 애착, 완벽주의, 한국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한국 어머니들의 양육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양육불안을 어머니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과 함께 한국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어머니의 양육불안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어머니들을 통해 수집한 불안의 내용들과 문헌연구들을 통해 수집한 문항들을 근거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예비 문항을 선정하였고,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5요인이 발견되었다. 요인 1은 부모 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으로 명명하였는데, 자신의 양육방식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자녀가 닮을지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기존에 한국 부모 자녀관계의 특성인 관계주의를 반영하고 지나친 밀착관계, 미분화된 부모 자녀관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들이 요인 1로 포함되었다. 즉 이는 한국 어머니들의 보이는 자녀와의 밀착관계는 하나의 다른 요인이나 특성이라기보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신념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요인 2는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으로 명명하였는데, Bowlby가 제안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기반으로 하였다. 즉 양육자의 어린 시절 애착은 내적 작동모델의 형태로 계속되고 그것은 후속 관계 형성 방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이론을 기반으로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 태도와 부모와의 관계 방식이 현재 자신의 자녀에게 미치는 관계, 즉 자녀와의 애착관계 형성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요인 3은 자녀에 대한 염려로 명명하였는데, 자녀가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자신의 자녀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며 불안해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자녀의 잘못이 자신의 잘못으로 느껴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평가를 받을까 불안해하는 자녀와의 동일체감 및 다른 사람의 평가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요인 4는 사회적 지지로 인한 불안으로 명명하였는데, 양육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불신감과 그로 인한 불안감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현재 부모들은 핵가족화가 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양육의 도움을 받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들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부모는 양육 관련 인터넷 동호회, 부모 교육, 서적 등의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 양육의 도움을 받고자 노력을 하지만 요인 4는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자신에게 실제 유용하고 신뢰로운 정보를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염려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요인 5는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으로 명명하였는데,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느끼는 등 부모 자신의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감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실제 부모가 자신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경험적인 내용들과 양육 불안과 관련된 문헌들의 내용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한국 부모의 양육 불안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한국 부모 자녀관계의 특성이 하나의 문화적인 특성으로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에 대한 신념과 태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부모 양육과 관한 연구들에서는 어머니의 불안에 대해서 정서적인 면과 정신 생리적인 면을 측정하여 다른 양육관련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불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부모가 양육에서 경험하는 개인의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와 완벽주의 성향, 사회적 지지 요인, 한국 사회의 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양육불안을 측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외국 논문들을 번안하여 한국 부모에 맞게 표준화한 양육 관련 척도들은 한국 부모에게 재 표준화가 되어 있지만 한국 문화적인 특성을 여실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고 단순히 번역하여 표준화하는데서 그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경험 연구를 하여 실제 양육에서 경험하는 어머니들의 불안감을 수집하여 문항에 그대로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의 부모 자녀관계 특성과 한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더욱 한국 부모의 양육불안을 충분히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척도를 통해서 어머니가 어떠한 요

인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는지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고려한 양육 상담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어머니의 양육불안 척도 타당화

연구 문제 2에서는 어머니의 양육불안척도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척도를 확인적 요인분석과 다른 변수와의 관계에 대한 기초를 근거로 공인타당도를 수집하였다. 또한 자녀의 정신장애진단 유무에 따른 차이를 통해 척도의 유용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첫째, 연구 1에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를 통해 문항이 삭제, 수정되었고 연구 2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묶인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척도의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 때와는 다른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상이한 표집에서 요인구조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양육불안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양육효능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양육불안과 양육 효능감 척도의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불안의 하위요인이 모두 양육 효능감의 하위 요인인 부모 역할 효능감과 관련된 인지적 차원은 부적 상관을 보여 양육불안이 높을수록 부모 역할의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로서의 좌절 및 불안감을 측정하는 정서적 차원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 양육불안이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좌절 및 불안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발된 양육불안 척도는 적절한 수준의 공인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 증상이 양육효능감을 저하시킨다는 국내외 연구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김미숙, 2005; 신숙재, 1997; Jones & Prinz, 2005). 즉, 어머니가 양육을 하는데 있어 자신감

이 부족하고 유능감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 양육을 하는데 불안감이 높고 자녀와의 애착관계로 인한 불안감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낮고 부모로서 자신감이 부족하며 좌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에 대한 염려감이 높고 사회적 지지체계가 불안정하며 부모 자신에 대한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감이 높을수록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양육효능감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육불안은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특성으로 생각된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면, 양육불안은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학습의 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의 세 요인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육불안의 모든 요인 즉, 부모가 역할 효능감이 부족하여 느끼는 불안감과 자녀와의 애착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높으며 자녀에 대한 염려감이 높고 사회적 지지체계가 불안정하며 부모 자신의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 양육에 있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어머니가 불안을 느끼게 되면 양육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게 되고(손영지, 2010; 천혜영, 2011), 신경증이 높은 집단이 신경증이 낮은 집단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를 훨씬 많이 지각한다는 연구 결과(길연하, 1996)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또한 ADHD 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양육 스트레스가 높으며 부모로서의 불안감이 높은 결과와도 일치되게 나타났다(서민정 외, 2003). 이같이 어머니가 양육을 하는데 있어 불안감이 높으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느끼는 스트레스를 매우 크게 느끼고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양육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양육불안과 양육 태도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양육불안은 애정적 태도,

자율적 태도와는 부적 상관을,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양육불안과 거부적 태도와 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양육을 하는데 있어 불안감이 높으면 자녀에게 보다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를 취하기 어렵고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혜린(2012), 김영희, 장래수(2004)의 연구와 일치되게 나타났다. 그러나 강영미(2004)의 연구에서 특성불안과 통제적 양육태도와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결과와는 다르게 두 변인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양육태도 중에서 통제적 양육태도는 상관이 있으나 높지는 않는 편으로 나타났다. 서구에서는 통제적 양육태도가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양육태도를 의미하나, 한국문화에서는 반드시 역기능적인 양육태도를 의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론된다. 즉, 박영신 등(2000)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취동기간의 관계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성취에 대한 관심이 많고 따뜻하게 애정을 갖고 대할수록, 또한 자녀를 많이 통제할수록 자녀의 성취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적대적이고 무관심하며 거부적인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성취동기가 낮았다. 부모의 애정이 자녀의 성취동기와 정적인 관계에 있고, 적대나 무관심 및 거부가 자녀의 성취동기와 부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서양에서 누적되어온 많은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나, 다만 서양과 반대의 결과인 부모의 통제가 자녀의 성취동기와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결과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한국 문화에서는 부모의 통제가 부정적으로만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통제가 관심의 표현으로 자녀에게 수용되고, 수용되는 수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관계에서 오히려 애정의 표현 방식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박영신 외, 2004). 양육태도 척도 또한 외국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된 것으로 한국사회 문화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양육태도 척도 개발을 통해 양육

태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양육불안 척도의 하위요인들은 양육태도와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어머니의 정서 문제 중 양육불안은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감과 과도한 자녀에 대한 염려감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기에 부모 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우울 뿐 아니라 불안감에 대해서도 다루어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다섯째, 양육불안과 우울,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육불안은 어머니의 우울 및 불안과 정적 상관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불안은 우울, 일상적인 스트레스, 양육의 죄책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천혜영(2011)의 연구와 불안한 어머니는 우울하기 쉽고 우울한 어머니는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는 이유진(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심리적으로 우울감이 높은 어머니는 양육불안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성불안이 높은 어머니 또한 양육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의 우울증은 불안과 관련이 높은 요인이기는 하나 또 다른 정서 특성임을 알 수 있었다. 기존 불안 척도에서는 우울과 불안이 서로 관련이 있기는 하나 명백히 다른 정서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혼용하여 측정하고 있는데, 본 척도는 불안의 특성을 반영하여 측정할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불안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단순히 특성불안이 높고 낮음으로 평가되었으나, 어머니의 완벽주의라는 개인적인 특성과 부모의 양육의 태도, 애착 등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된 양육불안을 개발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미치는 불안 요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도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섯째, 자녀가 정신장애로 진단을 받은 어머니와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어

머니간의 양육불안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부모 역할의 효능감과 자녀와의 애착관계, 자녀에 대한 염려, 사회적 지지로 인한 불안감 요인에서 더 높은 불안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자신에 대한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감은 자녀의 정신장애 진단유무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부모 자신의 완벽주의는 자녀의 진단 유무와는 관련이 없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양육불안 요인은 정신장애로 진단받은 어머니가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아동 어머니가 장애아동 어머니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이 높고 장애아동 어머니는 일반 아동 어머니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가 높다는 연구(서우경, 김도연 ; 2013) 및 자폐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정상아 어머니간의 불안 차이가 있고(김은숙, 1985), ADHD 아동 어머니가 일반 아동 어머니에 비해 불안감이 높다는 결과(서민정 외, 2003)와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장애아 어머니는 자존감이 낮고 불안정도가 높다는 연구(정길수, 이경숙, 1994)와 정신장애 아동을 둔 어머니일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우울 증상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신민섭, 오경자, 홍강의 ; 1992)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자녀가 정신장애로 진단받은 어머니들은 어머니의 정서 문제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일으키거나 유지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나, 반대로 자녀의 정신장애 문제로 인해 어머니가 불안감이 매우 높고 부모로써 효능감을 낮아지며 자녀와의 애착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앞으로 자녀의 장애의 치료 유무 등 자녀의 장애로 인해 경험하는 불안감이 높아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정신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돕기 위해 어머니가 불안해하는 영역을 치료자가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불안감을 다루어주고 불안감을 낮추어주며 치료자와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지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척도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양육불안 척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특성

연구 문제 3에서는 본 척도를 통해 나타난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자녀의 성별과 어머니의 취업 유무, 상담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불안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자녀의 성별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유민아, 2010)와 일치되는 결과이며, 자녀의 성별과 학년 변수와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가 무의미하다는 연구(고성혜, 1994 ; 전귀연, 김수경, 2005)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불안의 하위요인 중 자녀에 대한 염려 요인에서는 남아를 둔 어머니가 여아를 둔 어머니에 비해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아보다 남아에게 좀 더 통제적으로 대하는 한편, 여아에게는 수용적으로 대하고(이지선, 정옥분, 2002; Cervantes & Callanan, 1998), 여아보다 남아에게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한다는 연구(송하나, 2006)의 결과를 볼 때, 어머니는 양육에 있어 남아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높고, 양육행동에 있어서도 더 통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남아와 여아간의 양육불안의 차이는 어머니 개인의 요인 뿐 아니라 여아에 비해 남아가 지닌 외현화된 행동이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양육불안에 더욱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요인에서는 자녀 성별간에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추후 연구에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불안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업주부 어머니가 취업모에 비해서 자녀와의 애착, 자녀와의 염려감 요인으로 인한 양육불안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유무나 직종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차이를 살펴본 연구(고성혜, 1994)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였고,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

해서 정신적 갈등과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양육 스트레스가 높다는 연구(권경희, 1986; 남유리, 1989)와는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자신에 대해 좀 더 무가치하게 느끼고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기 때문에 양육 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한 박해미(1994)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엄지원, 2011). 이와 같이 전업주부 즉 비취업모의 어머니가 불안감이 높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보고하는 비취업모가 자신에게서 느끼는 무가치감에 대한 보상으로 인해 경험하는 양육불안인지 혹은 신경아(1998)연구에서 말하는 전업주부들이 갖는 자신에게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아이에게 해주려는 욕구로 비롯된 것인지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비롯한 다양한 변인들을 통해 더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어머니의 상담 및 치료 유무에 따른 양육불안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요인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어머니가 상담 및 치료 경험이 없는 어머니에 비해서 양육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불편감이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이다(신현희, 안현의, 2005 ; 유영란, 이지연, 2006). 즉 어머니가 양육불안이 높을수록 전문적인 도움 추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어머니들은 부모로서 양육 효능감이 매우 낮음으로 인해 불안감이 높고 자녀와의 애착 형성에 있어서도 불안감이 높으며 자녀에 대한 염려감도 높아 양육에 대한 주변의 전문적 도움에 대해서도 신뢰감이 낮고 이로 인해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더욱 상담이나 치료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척도가 양육 상담 장면에서 이러한 부모의 불안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양육불안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문제 4에서는 양육불안의 하위요인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양육불안 하위요인 중 자녀와의 애착관계로 인한 불안감은 애정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 자신에 대한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감은 애정적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자녀를 민주적으로 자녀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며 아이 입장에서 온전히 이해하고 편안하게 관계를 맺는 애착 형성을 하는데 있어서 불안감, 불편감이 높은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김은정 외(2006)의 연구에서 부모의 강압적인 성향은 공감 요인, 존중 요인, 합리적 권위 요인과 부적 상관을 보였지만 완벽주의적 성향은 나머지 요인과 낮은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완벽주의적 성향은 바람직한 역할 행동을 촉진시키거나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인다. 완벽주의 양육태도로 인한 불안감이 자녀 양육에 있어 애정적인 태도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은 완벽주의의 양육태도가 반드시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즉, 어머니의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감은 양육불안의 다른 4가지 요인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요인으로 생각된다. 완벽주의에 대해 기존 연구들에게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과업지향, 자기 책임감, 결과에 대한 기대 및 미래 지향성의 행동 특성을 보인다는 연구(윤은정, 2000)에서처럼 어머니들의 완벽주의 양육태도로 인한 불안감은 자녀 양육을 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육불안이 거부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52%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양육불안 하위요인 중 부모 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감과 자녀와의 애

착관계로 인한 불안감, 자녀에 대한 염려감으로 인한 불안감이 높을수록 거부적 양육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는 자신의 양육불안으로 인해 자녀를 수용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고 냉담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서 부모 자녀관계 및 자녀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요인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해 사회적 지지에 관한 불안감이 낮을수록 거부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지지 요인에 대한 불안감은 부정적인 양육태도에 영향을 덜 미치는 요인임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양육불안 하위요인 중 자녀와의 애착관계에 대한 불안감과 자녀에 대한 염려감으로 인한 불안감이 낮을수록 자율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불안은 이렇듯 자녀를 존중하고 허용하고 수용하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양육불안 하위요인 중 자녀와의 애착관계, 부모 자신에 대한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감이 높을수록 통제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로 인한 불안감이 낮을수록 통제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타인지향적인 완벽주의가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이다(김영희, 장래수, 2004 ; 장래수, 2003). 특히 자녀와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자녀를 이해하는 애착형성에서의 불안감, 불편감이 높은 어머니와 자신의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행동에 제약을 많이 하고 심리적으로 통제를 많이 하는 등의 양육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통제적인 양육태도에 어머니의 불안감이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로 인한 불안감이 낮을수록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육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 자원에

대한 불신감, 불안감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지지 요인으로 인한 불안감은 오히려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에 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되며,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양육불안 척도는 양육불안을 더욱 세밀하게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의 중요성을 확인해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부모 상담시에 어머니의 양육불안감을 심층적으로 다루어줌으로서 아동의 문제를 이해하고 양육에 대한 상담을 효과적으로 조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제한점 및 의의

마지막으로 앞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척도는 양육불안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점차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의 참여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많은 개입을 하는 것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험 연구와 양육불안에 관한 연구도 추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양육불안 척도의 개발시에 자발적인 평정 의사를 전제로 하였기에, 평정에 입하는 어머니의 검사 태도와 타당성 여부를 측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해서 방어적이거나 부정 왜곡 혹은 긍정 왜곡의 태도

를 보이는 부분을 제대로 탐지해내지는 못하고 있다. 차후에 이러한 방어적인 태도 및 왜곡된 태도를 감지해낼 수 있는 타당화 척도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 유무에 대해서 어머니의 자기 보고식 평가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성이나 신뢰도를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방어적인 태도로 인해서 더욱 자기 보고식 반응의 평가가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차후 정신과 전문의나 임상심리전문가의 정확한 정신장애 진단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학력, 수입 등의 어머니의 인구 사회학적 변인들은 분석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자녀의 장애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지 않았다. 어머니의 불안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심리적인 변인 외에도 다양하므로 어머니의 연령과 가정의 월평균 수입, 교육 수준 등 심리적인 변인 외에 다양한 인구 사회학적 변인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장애 학생 불안의식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건강 장애 학생의 부모의 불안 의식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을 볼 때(장희대, 2010 ; Bayat et al., 2008 ; Cohen & Martinson, 1988), 자녀의 장애도 정신장애 뿐 아니라 건강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피험자를 통해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령 전기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대상의 범위를 넓게 하여 어머니의 양육불안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 사회 문화적인 특성인 관계주의적인 태도를 반영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차후의 연구에서 양육불안과 어머니의 원가족과의 자아 분화, 현재 자녀와의 자아분화 등 세대간의 연구들을 통해 양육불안과 부모 자녀관계에서의 자아분화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불안 수준과 어머니의 심리 상태, 자녀의 심리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 자녀관계에서 어머니와 자녀의 병리적인 상호작용 결과 어머니와 아동 모두에게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장애가 유발될 뿐더러 그것이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고, 그 원인과 결과를 분리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신민섭, 오경자, 홍강의, 1992). 다만 어머니의 불안감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역기능적인 양육태도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준이 될 만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점차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상담과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녀수는 감소하고 자녀를 더욱 완벽하게 잘 키우고 싶은 욕구가 높아졌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범람하는 정보들로 인해서 더욱 혼란감을 느끼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불안감을 측정해 이들을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기에 임상 장면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 양육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는 장면에서도 단순히 어머니의 특성불안과 상태불안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불안감이 완벽주의적인 태도로 인한 불안감인지, 사회적 지지요인으로 인한 불안감인지, 자신의 양육효능감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불안감인지, 양육불안을 다각도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데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머니의 불안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어머니가 현재 양육시에 불안해하는 영역을 좀 더 다양하게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어느 영역으로 인한 불안감이 높은지에 따라 그에 따른 치료 방안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부모 상담 및 부모 교육에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생각된다. 즉, 부모 자신의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높은 어머니는 부모 교육시에 자신의 과도한 완벽주의 성향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완벽주의적인 양육태도의 변화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부모 역할에 대한 효능감 즉, 양육에 있어서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녀와 지나친 밀착관계, 과도한 책임감, 죄책감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어머니라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주는 양육 상담적인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가족과의 문제로 인해 자녀와 애착 형성에 있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부모 상담시에 이러한 원가족과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주고 자녀와 안정된 애착 형성을 돕는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자녀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불안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어주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지지체계로 인한 불안감이 높은 어머니는 주변의 양육적인 도움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지지체계가 부족한 것인지 구체적인 탐색을 통해 치료자와 라포 형성을 하고 양육 상담에 대한 조금 더 신뢰감을 주며, 양육에 대해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동 상담 및 치료 현장에서 아동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 불안을 분석하여 양육불안 감소를 위한 노력을 통해서 부모 자녀관계를 개선해나가고, 상담 전후에 이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상담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 교육과 부모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을 조기에 확인해내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강영미(2004). 어머니의 성취 동기, 특성불안 및 자녀에 대한 신뢰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희경, 조복희(1999).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역할과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0(2), 41-55.
-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 21-37.
- 고인숙(1998). 부모의 특성불안과 양육태도 및 아동의 문제행동.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권경희(1986). 한국 도시주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길연하(1996). 성격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 : 외향성과 신경증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미, 박범혁, 김영희(2005). 기초연구 :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관련된 어머니와 아동의 특성. **놀이치료연구**, 9(1). 23-37.
- 김규원(1995). 가족의 관계역동성과 문제의식 :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치관, 가족학 논집, 7, 213-255.
- 김기현, 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미숙(200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사라형선, 조한익(2005).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아동의 무조건적 자기수용 및 우울, 불안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5), 151-163.

- 김성현(2004). 친밀 관계경험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 장래수(2004). 부모의 완벽주의, 우울,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적응행동. **놀이치료 연구**, 8(1), 118-138.
- 김우경(2012). 어머니 불안과 학령 전 아동의 불안/우울 및 외현화 문제행동간의 관계 : 아동 애착 안정성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숙(1985). 자폐아 어머니와 정상아 어머니의 불안·좌절에 대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정, 김영아, 김유진, 문수종(2006). 부모역할행동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7(4), 219-232.
- 김정택(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 Spielberger의 STAI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2007).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 쓰기. 커뮤니케이션 북스.
- 김주미, 유성경(2002). 전문적 도움 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문화적 요인. **한국 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 치료**. 14(4), 991-1002.
- 김중희(2005). 어머니의 완벽주의 성향과 유아의 창의적 성향 및 창의적 사고와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춘경(2000). 부모의 과잉보호가 아동의 성격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개인 심리학적 분석. **놀이치료연구**, 4(1), 35-40.
- 김현순(2005). 청소년 애착과 자아 탄력성이 정서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영(2008). 어머니와 완벽주의와 심리적 통제가 남, 여 아동의 완벽주의 및

-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유리(1989).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스트레스 지각에 관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정현(2007). 한국적 부모-자녀 관계, 가족주의, 효. **부모교육연구**, 4(2), 81-94.
- 박근주, 김연진, 서명원, 윤매자, 이종숙, 조경옥 공저(2012). **영유아기 부모 역할을 위한 부모교육**, 양서원.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아청(1998). 과보호의 발달 심리학적 의미에 대한 일고찰. **인간발달 연구**, 5(1), 53-72.
- 박영신, 김의철(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초·중고 대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8(2), 109~147.
- 박영신, 김의철(2004).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자기 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2000). 초·중·고등학생의 생활 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94-118.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2004). 한국 청소년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 연구 : 자기 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0(3), 37-59.
- 박성연, 전춘애,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203-215.
- 박혜선(2010). 어머니의 완벽주의 및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해미(1994). 자녀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방희정, 윤진영, 김아영, 조혜자, 조숙자, 김현정(2007). 한국 성인의 관계적 자기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3(3), 23-63.
- 소연주(2001) 어머니의 분리불안 : 어머니의 특성, 아동의 초기 기질 및 과보호적 양육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하봉(2001). 중학생을 위한 수학 불안 요인 측정도구의 개발과 사용.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우경, 김도연(20013).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및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26(1), 121-136.
- 서신영(1998). 대학생의 자존감, 대처방식과 도움 추구태도와의 관계 연구. 서울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민정, 장은진, 정철호, 최상용(2003).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감, 부모효능감에 관한 연구 : 정서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어머니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8(1), 69-81.
- 성지현, 백지희(2011). 한국판 양육 효능감 척도(K-EGSCP)의 타당화 연구 : 영역별 양육 효능감과 관련 인지구조 척도. **한국발달심리학회지**, 24(4), 135-150.
- 손영지(2010).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 성격의 중재효과.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하나(2006). 가족의 인구학적변인과 아동의 정서적 적응이 부모의 정서 표현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1), 75-85.
- 신경아(1998). 한국 여성의 모성 갈등과 재구성에 관한 연구 : 30대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 신민경(2003).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민섭, 오경자, 홍강의(1992). 정신 장애 아동들의 어머니의 MMPI 유형 분석. **소아청소년정신의학**, 3(1). 97-105.
- 신민섭, 김중술, 박광배(1993). 한국판 BECK 우울 척도의 분할점과 분류 오류. **한국 심리학회지 : 임상**, 12(1), 71-81.
- 신연희, 안현의(2005). 전문적 도움 추구행동에서 접근 요인과 회피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77-195.
- 신혜린(2012). 어머니 특질 불안이 어머니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하얀, 서영석(2010). 성인애착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대인관계 문제 : 피드백에 대한 반응, 정서적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의 매개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2(3), 575-603.
- 양소호(2011). Likert형 척도의 반응 형식에 따른 양호도 비교 : 범주의 수와 중립반응범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재원, 양윤란, 오경자(2008). 아동,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측정 : 한국판 청소년 사회불안척도(K-SAS-A)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7(4),

861-878.

양정하(2010) 부모의 비합리적 신념과 특성불안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엄지원(2011). 한국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예측변인 : 사회인구학적 특성, 영아특성,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부부관련 특성,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민아(2010). 어머니의 격리불안 및 양육태도가 영아의 보육시설적응에 미치는 영향 :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영란, 이지연(2006). 성인애착과 전문적도움 추구 의도: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지지, 자기은폐의 매개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 치료**, 18(2), 441-460.

유은승, 안창일, 박기환(2007). 한국판 Liebowitz 사회불안척도(LSAS)의 요인구조 및 진단적 유용성 : 대학생 집단과 사회공포증환자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6(1), 251-270.

유한익(2004). 부모의 애착유형과 아동의 정신병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은정(2001). 애착과 성취동기가 완벽주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원호택, 박현순, 권석만(1995). 한국판 공황장애 척도의 개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4(1), 95-110.

원호택(2001), **이상심리학**, 법문사.

이경숙(1997). 어머니의 특성불안의 자녀교육관이 부정적 양육태도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화, 류진혜(2002). 완벽주의 성향의 순기능과 역기능. **청소년학연구**, 9(3), 293-316.
- 이민규, 김효창, 김수정, 조연동(2007). 방송 프로그램에 나타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한국적 문화 특성 연구 : KBS 1TV <아침마당> 출연자들의 이야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통권**, 21(2), 241-275.
- 이병래(2005). 어머니의 완벽주의 성향과 자녀의 정서 지능과의 관계. **유아교육학회지**, 9(4), 277-297.
- 이승희(1999). 완벽성향이 내외동기, 성취목표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2005). 완벽주의와 특성불안이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호, 송종용(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0(1), 98-113.
- 이운기(2005). 자아분화와 우리의식을 매개로 한 한국적 부모-자녀관계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유진(2006). 어머니의 우울,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 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연, 최영희(1990). **아동 발달**, 서울: 문음사.
- 이종훈(1996). 한국형 자가평가 불안 척도의 개발. **영남의대학술지**, 13(2), 279-294.
- 이정윤, 류희균(2006). 부모역할 자긍심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유아동기 자녀의 어머니용, **상담학연구**, 7(4), 1239-1254.

- 이지선, 정옥분(2002). 부모의 정서 표현 수용태도와 유아기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17-35.
- 이학식, 임지훈(2008).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7.0**. 파주:법문사.
- 장래수(2003). 부모의 완벽주의, 우울,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적응 행동.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원동, 류현수(2000). **부모 교육**. 태영출판사.
- 장휘숙(1997). 애착의 전생애 모델과 대물림 : 전생애 발달심리학적 조망에서 애착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16(1), 80-97.
- 전귀연, 김수경(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1), 35-51.
-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 김혜진(2008). 한국형 부모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558-559.
- 정길수, 이경숙(1994). 장애아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불안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59(11), 879-887.
- 정옥분, 정순화(2001). **부모 교육-부모 역할의 이해**. 양서원.
- 정은영(2008). 과보호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옥분(1998). **청년 발달의 이해**. 학지사.
- 정영숙, 김영희, 박범혁 공저(1991). **아동발달과 부모 교육**. 시그마 프레스.
- 조용래, 이민규, 박상학(2009). 한국판 발표불안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8(2), 165-178
- 조용래, 원호택(1997). 대인불안에 대한 인지적 평가 :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 효능감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에 관한 연구. **심리학의 연구문제**, 4, 397-434

- 조용래(2011), 한국판 개정된 시험불안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 11(1), 99-109.
- 조진주(2008). 청소년의 애착과 완벽주의성향이 특성불안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희대(2010). 건강장애 학생 부모의 불안의식과 양육태도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미란(1994).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따른 자아분화수준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계숙, 김명애, 김혜금, 문혁준, 심희옥(2007). **부모 교육**. 창지사.
- 제석봉(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Bowen의 가족체계 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천혜영(2011). 어머니의 불안과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와 영유아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상진(2000, 2003). **한국인 심리학**. 중앙대학교출판부.
- 최상진, 김혜숙, 유승엽(1994). 부자유친성정과 자녀에 대한 영향력.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학술발표 논문 초록**. 65-82.
- 최유경(1999). 부모간 양육태도, 출생 순위,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친구관계와 인기도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숙(2006). **훈련 중심 부모 역할 교육**. 교육과학사.
- 최현미(1997). 원가족 척도 연구-결혼 초기 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순자, 심공창지, 이광형(2006). 육아불안 구조의 국제비교: 한국, 일본, 대만 어머니의 자녀 양육 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 연구**, 11(1), 163-176.

- 최은아(2011)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분리불안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형성, 정옥분(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5.
- 허정철, 이용남(1979). 어머니와 자녀의 일체감에 대한 조사 연구. 연구 노트 8 권, 10호 통권 102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허기순, 김영희(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 부부관계,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8(1), 25-52.
- 한기연(1993). 다차원적 완벽성 : 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남제(1994). **한국 가족관계의 문제**. 서울 : 다산출판사.
- 박성연,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조화, 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아동학회지**, 17(1), 245-258.
- 현은강(1994).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변인.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현은강, 조복희(1994). 부모의 역할만족도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2(1), 103-117.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19(1), 161-177.
- 현정환(2007).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최근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보육학회지** 7(1), 95~110.
- Abidin, R. R.(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 The stress of parenting :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298-301.

- Abidin, R. R.(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407-412.
- Abidin, R. R.(1992). *Parenting stress index* : Third edition, professional manual. PAR.
- Allen, C.(1993). An investigation of parenting efficac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1996). Multifaceted impact of self-efficacy beliefs on academic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7*, 1206-1222.
- Bayat, M., Erdem, E., & Kuzucu, E. G.(2008). Depression, anxiety, hopelessness, and social support levels of the parents of children with cancer. *Journal of pediatric oncology, 25(5)*, 247-253.
- Beck, A. T., Brown, G., Eidelson, J. I., Steer, R. A., & Riskind, J. H.(1987). Differentiating anxiety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cognitive content-specific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6*, 179 - 183.
- Beck, A, T., Ward, C. H., Mendelson, M., Mock, J., & Erbaugh, J.(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 53-63.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igner, J. J.(2006). *Parent-child relationship : An introduction to*

- parenting*(7th ed.). NJ : Pearson Education Inc.
- Bornstein, M. H., Haynes, O. M., Azuma, H., Galperin, C., Maital, S., Ogino, M., Painter, K., Pascual, L., Pocheux, M, Rahn, C., Toda, S., Venuti, P., Vyt, A. & Wright, B. (1998). A cross-national study of self-evaluations and attributions in parenting : Argentina, Belgium, France, Israel, Italy, Japan and the United State.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662-674.
- Bourne, E, J. (2005). *The Anxiety and Phobia Workbook*, New Harbinger Publications.
- Bowlby, J.(1969). *Attachment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46-76. New York : Guilford Press.
- Browne, M. W, & Cudeck, R.(1993).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Newbury Park, California : Sage.
- Burns, D. D.(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Nov, 34-52
- Buss, A. H., & Plomin, R.(1975). *A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 Wiley.
- Cassidy, J., & Shaver, P. R.(Eds.).(2008). *Handbook of attachment :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2nd ed. New York : Guilford Press.

- Cervantes, C., & Callanan, M.(1988). Label and explanations in mother-child emotion talk : Age and gender differentiation, *Development Psychology, 34*, 88-98.
- Cicchetti, D., & Cohen, D, J.(2006).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2*, New York : Wiley.
- Cohen, M. H., & Martinson. I . M(1998). Chronic uncertainty: Ins effect on parental appraisal of a child's health,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3*, 89-96.
- Cohen, S., & Wills, T.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oleman, P. K., & Karraker, K. H.(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leman, P. K., & Karraker, K. H.(2000).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mother of school-age children :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correlates, *Family Relations, 49*, 13-24
- Coleman, P. K., & Karraker, K. H.(2003). Maternal self-efficacy beliefs, competence in parenting, and toddlers' behavior and developmental statu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4*, 126-148.
- Crnic, K & Acevedo, M.(1995).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Mahwah, NJ : Lawrence Erlbaum.
- Crockenberg, S.(1988).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In W, Fitzgerald, B. Lester, and M. Yongman(Eds.). *Research on support for parents and*

- infants in the postnatal period.* New York : Ablex.
- Cummings, E. M., Davies, P. T.(1994).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35*, 73-112.
- Crowell. J. A., & Feldman. S. S.(1991). Mother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mother and child behavior during separation and reun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597-605.
- Cox, M., Owen, M., Lewis, J., & Henderson, V.(1989). Marriage, adult adjustment, and early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0*(5), 1015-1024.
- Davey, G.C. L., Hampton, J., Farrell, J. & Davison, S.(1992). Some characteristics of worrying : evidence for worrying and anxiety as separative construc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2), 133 - 147.
- Dumka, L. E., Stoerzinger. H. D., Jackson, K. M. & Roosa, M. W.(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 216-222.
- Edmund J. Bourne(2005). *The Anxiety & phobia workbook.* Fourth Edition. New Harbinger.
- Fisher, E. H., & Turner, J.(1970). Orientation to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 Development and research utility of an attitude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5*, 79-90.
- Flett, Gordon L.; Hewitt, P, L., Blankstein, K, R. & O'Brie, S.(1991). Perfectionism and learned resourcefulness in depression and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61 - 68.
- Flett, Gordon L.; Hewitt, P, L., Blankstein, K, R. & Mosher, S, W.(1991)

- Perfectionism, self-actualization, and personal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6(5), 147-160.
- Flett, G. L., and Hewitt, P. L.(2002). *Perfectionism :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Washington D. 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raley, R. C., & Shaver, P. R.(1997). Adult attachment and the suppression of unwanted though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5), 1080-1091.
- Frost, R. O. & Marten, P.(1990). Perfectionism and evaluative threa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6), 559-572.
- Griffith, G M.(1975). Effects of trait anxiety trust and outcome expectancies on state anxiety and expectancy for succ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ayloc University, Dissertation Abstracts*, 36(B), 4689.
- Giband-Wallston, J., & Wandersman, L. P.(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al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Guidubaldi, J., & Cleminshaw, H. K.(1985). The Development of the Cleminshaw-Guidubaldi Parent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4(4), 293-298.
- James, E. E., Schumm, W. R., Kennedy, C. E., Grigsby, C. C., & Sheckman, K. L.(1985). Characteristics of the Kansas parental satisfaction scale among two samples of married parents. *Psychological Report*, 57, 163-169.
- Hamachek, D. E.(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t, *Psychology*, 15. 27-33.

- Hamner, T. J., & Turner, P. H.(1996).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3rd ed.). Needham Heights, MA : Allyn & Bacon.
- Hamilton, M (1959). The assessment of anxiety states by rating.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32*, 50-55.
- Hayton, J. C., Allen, D. G., & Scarpello, V.(2004). Factor retention decision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 tutorial on parallel analysi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7*, 191-205.
- Hewitt, P.L., & Flett, G.L.(1991a).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 :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 Hewitt, P. L., Flett, G. L.(1991b). Dimensions of perfectionism in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1), 98-101.
- Hewitt, P. L., Flett, G. L., Blankstein, K. R. & Mosher, S. W.(1991). Perfectionism. self-actualization, and personal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6*, 147-160.
- Hewitt, P. L., & Flett, G. L.(199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daily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1), 58-65.
- Hewitt, P. L., Flett, G. L., & Weber, C.(1994).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nd suicide idea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8*(5), 139-460.
- Hewitt, P. L., Flett, G. L., Sherry, & Mikail, S. F.(1995). perfectionism and family adjustment in pain patient and their spous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9*. 335-347.
- Hoffman, K. A. & Wiess, B.(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157-163.
- Hollender, M. H.(1965). Perfectionism. *Comprehensive Psychiatry*, 6(2), 94-102.
- Hock, F. & Schirtzinger, M. B.(1992). Maternal separation anxiety: Its developmental course and relation to maternal mental health. *Child Development*. 63 : 93-102.
- Horn, J. L.(1965). A rationale and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s in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20, 179-185.
- Hovestadt, A. J., Anderso, W. T., Piercy, F. P., Cochran, S. W., & Fine, M.(1985). A family of 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3), 287-297.
- Izzo, C., Weiss, L., Shanahan, T., & Rodriguez-Brown, L.(2000). Parental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adjustment in Mexican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Prevention & Intervention in the Community*, 20, 197-213.
- Jones, T. L. & Prinz, R. J.(2005). Potential roles of parental self-efficacy in parent and child adjustment :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 (3). 341-363.
- Kagitchbasi, C.(1990). Family and socialization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 A model of change. In J.J. Berman(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 Lincoln, NE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Kelly, A. E., & Achter, J. A.(1995). Self-concealment and attitudes toward

- counseling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40-46.
- Kerr, M. E. & Bowen, Murray(1988). *Family evaluation :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New York : Norton.
- Kline, R. B.(2004).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 Guilford Press.
- Lazarus, R. S. & Averill, J. R.(1972). Emotion and cognition : With special reference to anxiety. In Spielberger, C. D. (Ed.) (1972). *Anxiety :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 Academic Press, p.241.
- Lopez, F. G., & Gormley, B.(2002). Stability and change in adult attachment style over the first-year college transition: Relations to self-confidence, coping, and distress patter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355-364.
- Lopez, F. G., Mitchell, P., & Gormley, B.(2002).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and college student distress : Test of a meditation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4), 460-467.
- MacLeod, C., & Cohen I, L.(1993). Anxiety and the interpretation of ambiguity : a text comprehension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2), 238-47.
- Mathews, A.(1990). Why worry? The cognitive function of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8, 455-468.
- McNair, D. M., Lorr, M., & Droppleman, L.(1971). *Manual for the Profile of Mood States*. San Diego, CA : Educational and Industrial Testing

Services.

- McLemna, J.(1991). Formal and informal counselling help : Students experience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19, 149-159.
- Mikulincer, M., & Orbach, I.(1995). Attachment styles and repressive defensiveness : The accessibility and architecture of affective mem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5), 917-925.
- Mikulincer, M., & Florian, V.(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s and emotional and cognitive reactions to stressful events.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143-165). New York : Guilford Press.
- Missildine, W. H.(1963). *Your inner child of the past*. New York : Simon & Schuster.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 1-10.
- Peurifoy, R. Z.(1988). *Anxiety, Phobias, and Panic : Taking charge and conquering fear*. Citrus Heights, Calif. : Lifeskills.
- Priel, B., & Shamai, D.(1995). Attachment style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 Effect on affect regul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 235-241.
- Rahaly, K. A.(1972). The relationship between movement participation. Movement satisfaction, self-actualization, and trait anxiety in selectee college freshman wom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Dissertation Abstracts*, 32(A), 3766.

- Sabine Wilhelm, Gail S. Steketee(2006). *Cognitive Therapy for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New Harbinger.
- Salkovskis, P.M.(1985). Obsessional-compulsive problems : A cognitive-behavioral analysi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3, 571-584.
- Salkovskis, P.M.(1989). Cognitive-behavioral factors and the persistence of intrusive thoughts in obsessional Proble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7, 677-682.
- Schaefer, E. S., Bell, R. Q., & Bayley, N.(1959). Development of a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95. 83-104.
- Shaver, P. P., & Milulincer, M.(2002). Attachment-related psychodynamic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4(2), 133-161.
- Simons, R.L., Whitbeck, L. B., Congher, R. D., & Melby, J.(1990). Husbands and wife differences in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social learning and exchange model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0(4). 1063-1072.
- Snell, W. E., Jr., Overbey, G., & Brewer, A.L.(2005), Parenting perfectionism and the parenting ro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 613-624.
- Spielberger, C.D.(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Spielberger, C.D.(1972). *Anxiety : Current Trend,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 Spielberger, C.D., Gorsuch, R. L., Lushene, R., Vagg, P. R., & Jacobs, G. A.(1983).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Form Y).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
- Swick, K. J., & Hassell, T.(1990). Parental efficacy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Instructional Psychology*, 17, 24-32.
- Taylor, J.A.(1953). A Personality scale of manifest anxiety. *Journal of Abnormal Social and Psychology*, 2, 285-290.
- Van Ijzendoorn, M. H.(1992).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ing : A review of studies in nonclinical populations. *Developmental Review*, 12(1), 76-99.
- Vogel, D. L., & Wei, M.(2005). Adult Attachment and help-Seeking intent : The mediating roles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347-357.
- Wakerman, R. J.(1975). Biographical information, An empirically derived test for the prediction of anxiety and its relationship to past life experiences,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 *Dissertation Abstracts*, 36(B), 4185.
- Watson, D. & Friend, R.(1996).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448-457.
- Wei, M., Vogel, D. L., Ku, T. Y., & Zakalik, R. A.(2005).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negative mo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roles of emotional reactivity and emotional cutof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1), 14-24.

- Woodhouse, S. S., & Gelso, C.J.(2008). Volunteer client adult attachment, memory for in-session emotion, and mood awareness : An affect regulation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2), 197-208.
- Zwener, W. A., & Deffenbacher, J. L.(1984). Irrational beliefs, anger, and anxie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391-393.
- Zuckerman, M & Luvin, B.(1965). *Manual for the 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list*, San Diego, CA : Education and Industrial Testing Services.

ABSTRACT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Anxiety Scale and its Validation Study

Ji-Hee W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Parenting Anxiety Scale for mother of the preschool and school-aged children, and to examin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is Scale. The preliminary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develop content items for the Parenting Anxiety Scale. The 89 mothers, experiencing parenting anxiety were asked to generate the difficulties with parenting their children. The content items selected based on the parental reports were analysed by factorial procedure. The preliminary Parenting Anxiety factors were composed of the Parenting Efficacy, Attachment, perfectionism, parent-child bonding, and social support system. The preliminary items selected by the experts in parenting were reduced from 82 to 60 items.

The second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factors of the Parenting Anxiety Scale. The preliminary 60 items were analyzed by us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ame up with five factors and final twenty six items were

selected for the Parenting Anxiety Scale such as parenting efficacy (6 items), anxiety due to mother-child attachment(5 items), worries about children(5 items), anxiety regarding social support(4 items), and perfectionism(6 items).

The third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concurrent validity of the Parenting Anxiety Scale by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internal consistency and factors of inter-item correlation of the Parenting Anxiety Scale demonstrated satisfactory reliability. The validity of the newly developed Parenting Anxiety Scale was carried out by checking correlations among existing Parenting Anxiety, and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The results are the follows:

1) The subscale of the Parenting Anxiety was correlated negatively with cognitive aspect of Parent's role Efficacy. Also, the subscale of the Parenting Anxie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affective aspect of parental controlling.

2) The Parenting Anxiety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Parenting Stress Scale. Also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Anxiety Scale and Parenting Behavior was negative. The Parenting Anxiety Scal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ffective and autonomous behaviors.

3) Also, Parenting Anxiety and rejection and disciplinary behaviors are positively correlated each other. The Parenting Anxiety Scale demonstrat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mother's depression and anxiety.

4)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between the mother of the children with mental disorders and receiving counseling and the mother of the normal children.

To sum it up, these studies proved that the newly developed Parenting Anxiety Scale can be the reliable and valid scale to assess the parenting

anxiety. This scale can be helpful treating the parents who are experiencing anxiety and stress by measuring their anxiety level appropriately. Also, this scale would be useful for the various researches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child-rearing.

The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were addressed.

Keywords : Parenting Anxiety Scale, Parenting Efficacy Scale, Parenting Stress Scale

<부 록>

부록 1. 예비 연구 설문지

부록 2. 연구 1 설문지

부록 3. 연구 2 설문지

- ① 양육불안 척도
- ② 양육효능감 척도
- ③ 우울증 척도
- ④ 양육스트레스 척도
- ⑤ 특성불안 척도
- ⑥ 상태불안 척도
- ⑦ 양육행동 척도

부록 4. 양육불안 척도의 잠재 변인과 측정변인의 추정계수

부록 5. 양육불안 척도 모형 요인 구조

부록 1.

<예비 연구 설문지>

질문 1. 어머니님 혹은 아버지님 자신이 아이 양육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가장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지 적어주세요.

내용의 개수와 분량,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니,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를 적어주세요. 한두 단어로 간단하게 쓰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유와 상황을 함께 자세히 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본인의 양육할 때, 현재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등 자녀를 양육하면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불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탐색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신 후 작성해주세요.

예) 나는 _____ 불안하다(걱정된다, 긴장된다. 초조하다. 두렵다. 가슴 졸인다.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 나는 _____ 불안하다(걱정된다, 긴장된다. 초조하다. 두렵다. 가슴 졸인다.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 나는 _____ 불안하다(걱정된다, 긴장된다. 초조하다. 두렵다. 가슴 졸인다.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왜냐하면 _____

* 나는

<양육불안 척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양육을 할 때 부모로써 매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2	내 눈에는 우리 아이가 항상 부족해 보인다.					
3	나는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평가를 받을까봐 불안하다.					
4	아이가 내 기준에 맞지 않아 다그치게 된다.					
5	나는 아이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6	나는 부모로써 양육을 실수 없이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어서 불안하다.					
7	나는 내 아이가 사람들로 부터 사랑받지 못할까 불안하다.					
8	나는 아이가 남들만큼 잘 하지 못하면 뒤떨어진 사람이 될 것 같다.					
9	나의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좋은 부모가 되는데 쏟고 있다.					
10	나는 아이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말을 주변에서 자주 듣는다.					
11	나는 아이가 실수하는 것을 보면 참을 수가 없다.					
12	주변 사람들은 내가 아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고 말한다.					
13	나는 부모로써 꼭 성공해야만 한다.					
14	나의 가족은 나에게 엄마로써 완벽하기를 바래서 매사 힘들다.					
15	주변 사람들은 내가 부모로써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고 한다.					

16	나는 아이가 모든 면에서 뛰어나게 잘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매사 불안하다.					
17	나는 양육 기준이 불확실하여 매사 불안하다.					
18	나는 아이가 왜 이렇게 키웠냐고 원망할까 두렵다.					
19	우리 아이가 나를 좋은 부모로 보는지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					
20	나는 나의 양육과 관련된 문제들을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 전문가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게 된다.					
21	나는 내가 양육을 잘 하고 있는지 불안하다.					
22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다.					
23	내가 아이의 미래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부정적인 영향만 주고 있을까봐 두렵다.					
24	나는 아이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라기보다 자꾸 챙기고 도와주어야하는 존재로 느껴져 부담스럽고 두렵다.					
25	나는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키우고 있는지 불안하다.					
26	나는 좋은 부모에 대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지 못하여 불안하다.					
27	나는 아이의 성향에 맞게 교육하고 있는지 걱정된다.					
28	나는 부모로서 아이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지 못할까봐 걱정이 된다.					
29	내가 아이를 망칠까봐 불안하다.					
30	나의 내 양육 방식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 매사 불안하다.					
31	나는 내 아이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을까봐 걱정된다.					
32	나의 부모님은 나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을 존중해주지 않는 편이어서, 나도 자녀를 존중해주지 않을까봐 걱정된다.					

33	내 아이는 내가 바라는 만큼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아서 걱정된다.				
34	나는 우리 아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두렵다.				
35	나는 아이가 나에게 의존하려고 하면 불편하다.				
36	나는 부모님에게 따뜻하거나 지지를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내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불편하다.				
37	나는 자녀 양육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편하지 않다.				
38	나의 부모님은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무시하고 수용해주지 않는 편이어서, 나도 아이가 나에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불편하다.				
39	내 아이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불안하다.				
40	아이가 잘못하면 내가 더 마음이 쓰인다.				
41	아이가 성공하지 않으면 내가 남들 앞에 나서기 힘들 것 같다.				
42	내가 잘 하지 못해서 경험했던 괴로움을 아이도 겪을까봐 괴롭다.				
43	아이의 문제는 모두 내 양육의 잘못된 것 같아 불안하다.				
44	아이에게서 나의 모자란 부분(나쁜 습관, 모난 성격)을 보면 나처럼 살게 될 것 같아 불안하다.				
45	내 아이가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행복하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46	나는 아이 곁에서 내가 아이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줄 수 있을지 두렵다.				
47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내 책임인 것 같은 부담감에 불안하다.				
48	나는 다른 사람이 내 아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민감한 편이다.				

49	내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 만큼 내 아이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봐 걱정된다.					
50	나는 점점 아이가 크면서 나로부터 심리적으로 멀어져갈까봐 두렵다.					
51	나의 지금까지 뭐든지 잘 못했지만, 아이 양육도 못할까봐 불안하다.					
52	아이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내가 남들 앞에 나서기 힘들 것 같다.					
53	나는 내 아이가 나의 모자란 부분을 닳을까봐 걱정이다.					
54	양육에 대한 걱정거리를 함께 털어놓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불안하다.					
55	양육에 대한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불안하다.					
56	내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양육에 관해 신뢰롭고 유용한 도움을 주지 못하여 불안하다.					
57	나의 양육 방식에 대해 불안감이 높아 항상 육아 서적, 인터넷, 상담에 의존한다.					
58	가까운 곳에 양육에 도움을 받을 만한 전문 기관이 많지 않아서 불안하다.					
59	육아 서적, 인터넷, 상담에 항상 의존하여도 불안하다.					
60	양육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부록 3.

<연구 2 설문지>

* 다음은 자녀에 관한 간단한 질문들입니다. 유치원, 초등학생 자녀를 생각하면서 체크를 하시되, “가장 걱정이 되는 아동”을 한 명 정하여 다음 문항을 체크해주세요(단, 중학생 자녀 제외).

1. 자녀의 연령은? ()
2. 그 아이의 성별은? ① 남 () ② 여 ()
3. 자녀의 학년은? (미취학은 0으로 써주세요)
미취학(), (학년) (학년) (학년)
4. 총 자녀 수는? (명) = (남 : 명) (여 : 명)
5. 설문 대상 아동과 상관없이 자녀 중 가장 걱정이 되는 자녀는 집에서 몇 째입니까?
① 첫째 ② 중간 ③ 막내 ④ 외동 ⑤ 기타() ⑥ 없음
6. 자녀가 현재 학교 생활에서 문제를 경험하고 있나요? ()
(예, 학교 폭력, 따돌림, 학습 부진, 이성교제, 담배 등 약물 문제, 가출 등의品行 문제 등)
① 예 ② 아니요
7. 자녀가 현재 가정 내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있나요? ()
① 예 ② 아니요

<양육불안척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부모로써 아이에게 좋은 본모기를 보여주지 못할까봐 걱정이 된다.					
2	나는 부모님에게 따뜻하거나 지지를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내 아이와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불편하다.					
3	아이가 내 기준에 맞지 않아 다그치게 된다.					
4	양육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5	주변 사람들은 내가 부모로써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고 한다.					
6	나는 내 아이가 나의 모자란 부분을 닳을까봐 걱정이다.					
7	나의 부모님은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무시하고 수용해주지 않는 편이어서, 나도 아이가 나에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불편하다.					
8	나는 아이가 남들만큼 잘 하지 못하면 뒤떨어진 사람이 될 것 같다.					
9	내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양육에 관해 신뢰롭고 유용한 도움을 주지 못하여 불안하다.					
10	나는 아이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11	나는 내가 양육을 잘 하고 있는지 불안하다.					
12	나는 아이가 나에게 의존하려고 하면 불편하다.					
13	양육에 관해 육아 서적, 인터넷, 상담에 항상 의존하여도 불안하다.					
14	나는 아이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말을 주변에서 자주 듣는다.					

15	아이의 문제는 모두 내 양육의 잘못인 것 같아 불안하다.					
16	나는 아이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라기보다 자꾸 챙기고 도와주어야하는 존재로 느껴져 부담스럽고 두렵다.					
17	아이가 잘못하면 내가 더 마음이 쓰인다.					
18	가까운 곳에 양육에 도움을 받을 만한 전문 기관이 많지 않아서 불안하다.					
19	나는 아이가 모든 면에서 뛰어나게 잘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매사 불안하다.					
20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내 책임인 것 같은 부담감에 불안하다.					
21	나의 부모님은 나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을 존중해주지 않는 편이어서, 나도 자녀를 존중해주지 않을까봐 걱정된다.					
22	나는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평가를 받을까봐 불안하다.					
23	나는 양육을 할 때 부모로써 매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24	내가 잘 하지 못해서 경험했던 괴로움을 아이도 겪을까봐 괴롭다.					
25	내 아이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 불안하다.					
26	나는 부모로써 꼭 성공해야만 한다.					

<양육효능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2	나는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4	나는 아이가 현재 보이고 있는 수준이 그 나이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짜증이 난다.					
5	내가 아이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려고 해도 아이가 내 뜻대로 잘 따라오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다.					
6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7	나는 좋은 부모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괜찮은 모델이다.					
8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9	아이가 나를 좋은 부모로 보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					
10	나는 부모로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느낀다.					
11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12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13	나의 흥미와 관심은 부모 역할이 아닌 다른 분야에 있다.					
14	내가 부모가 되는 것에 조금이라도 더 흥미가 있다면, 나는 지금보다도 좀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5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안다.					
16	부모로서 나는 긴장하고 있으며 불안하다.					

<우울증 척도>

1. ② 나는 슬프지 않다. ()
① 나는 슬프다. ()
② 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
③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

2. ②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
① 나는 앞날에 대해서 용기가 나지 않는다. ()
②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
③ 나는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

3. ②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
① 나는 보통 사람들 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
② 내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실패투성이 인 것 같다. ()
③ 나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낀다. ()

4. ② 나는 전과 같이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
① 나의 일상생활은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 ()
② 나는 요즘에는 어떤 것에서도 별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 ()
③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싫증난다. ()

5. ②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
①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
②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아주 많다. ()
③ 나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

6. ②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
① 나는 어쩌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느낌이 든다. ()
② 나는 벌을 받을 것 같다. ()
③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

7. ②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
①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
② 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
③ 나는 나 자신을 증오했다. ()

8. 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다. ()
 ①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나 자신을 탓하는 편이다. ()
 ②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나 나를 탓한다. ()
 ③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다 내 탓이다. ()
9. ㉔ 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
 ① 나는 자살할 생각을 가끔 하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
 ②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
 ③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
10. ㉔ 나는 평소보다 더 울지는 않는다. ()
 ① 나는 전보다 더 많이 운다. ()
 ② 나는 요즈음 항상 운다. ()
 ③ 나는 전에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었지만, 요즈음은 울래야 울 기력조차 없다. ()
11. ㉔ 나는 요즈음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는 편은 아니다. ()
 ① 나는 전보다 더 쉽게 짜증이 나고 귀찮아 진다. ()
 ② 나는 요즈음 항상 짜증을 내고 있다. ()
 ③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에 요즘은 너무 지쳐서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
12. ㉔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 ()
 ① 나는 전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
 ②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다. ()
 ③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어졌다. ()
13. ㉔ 나는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
 ① 나는 결정을 미루는 때가 전보다 더 많다. ()
 ② 나는 전에 비해 결정내리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
 ③ 나는 더 이상 아무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 ()
14. ㉔ 나는 전보다 내 모습이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
 ① 나는 나이 들어 보이거나 매력 없이 보일까봐 걱정한다. ()
 ② 나는 내 모습이 매력 없게 변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
 ③ 나는 내가 추하게 보인다고 믿는다. ()
15. ㉔ 나는 전처럼 일을 할 수 있다. ()
 ①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에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든다. ()

- ② 무슨 일이든 하려면 나 자신을 매우 심하게 채찍질 해야만 한다. ()
- ③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
16. ⑥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수 있다. ()
- ① 나는 전에 만큼 잠을 자지는 못한다. ()
- ② 나는 전보다 한 두 시간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
- ③ 나는 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 수 없다. ()
17. ⑥ 나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다. ()
- ①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 진다. ()
- ② 나는 무엇을 해도 피곤해 진다. ()
- ③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
18. ⑥ 내 식욕은 평소와 다름없다. ()
- ① 나는 요즈음 전보다 식욕이 좋지 않다. ()
- ② 나는 요즈음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
- ③ 요즈음에는 전혀 식욕이 없다. ()
19. ⑥ 요즈음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 ()
- ① 전보다 몸무게가 2kg가량 줄었다. ()
- ② 전보다 몸무게가 5kg가량 줄었다. ()
- ③ 전보다 몸무게가 7kg가량 줄었다. ()
20. ⑥ 나는 건강에 대해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
- ① 나는 여러가지 통증, 소화불량, 변비 등과 같은 신체적인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 ()
- ② 나는 건강이 염려되어 다른 일은 생각하기 힘들다. ()
- ③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은 아무것도 생각 할 수 없다. ()
21. ⑥ 나는 요즈음 성에 대한 관심에 별다른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
- ① 나는 전보다 성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
- ② 나는 전보다 성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
- ③ 나는 성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

<양육스트레스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일을 잘 처리한다고 느낀다.					
2	나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얽매어 있지는 않다.					
3	내 생활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꽤 많이 있다.					
4	아이가 생기고 나서 남편과의 관계에 예상외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5	나는 외롭고 친구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6	이 아이를 가진 뒤에도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					
7	나는 세상 일에 관심도 있고 재미도 느낀다.					
8	나는 내 아이를 위해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생각보다 많이 포기하고 있다.					
9	나는 예전과는 달리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다.					
10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나는 재미없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11	나는 우리 아이한테 좋은 부모라고 생각한다.					
12	아이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잘한다.					
13	아이는 나를 좋아하며 나와 가까이 있고 싶어 한다.					
14	아이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나를 보고 잘 웃지 않는다.					
15	아이는 때때로 나를 귀찮게 하려고 일을 저지른다.					
16	아이는 내 기대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가 느린 것 같다.					
17	아이는 내 기대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					
18	나는 아이에 대해 좀 더 친밀하고 따뜻한 감정을 갖고 싶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다.					

19	아이는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편이 아니라서 결국 내가 관여하게 만든다.					
20	내가 아이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면 아이는 나의 수고에 대해 고마움을 아는 것 같다.					
21	아이에게 규칙적인 취침과 식습관을 가르치는 일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22	아이에게 어떤 일을 시키거나 중지시키기는 어렵지 않다.					
23	아이는 아침에 잘 일어나며 기분도 괜찮아 보인다.					
24	아이는 성가신 행동(부산하고 산만하다, 운다, 싸운다. 빈둥거린다. 등)을 하는 편이다.					
25	아이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이 생기면 심하게 반발한다.					
26	아이는 고집이 세서 친구와 원만하게 지내는데 문제가 있다.					
27	아이는 변덕스럽고 기분이 쉽게 바뀐다.					
28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자주 울고 징징거린다.					
29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엄마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					
30	아이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게 기분이 상한다.					

<특성불안척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기분이 좋다.	1	2	3	4
2	나는 쉽게 피로해진다.	1	2	3	4
3	나는 울고 싶은 기분이다.	1	2	3	4
4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1	2	3	4
5	나는 마음을 빨리 정하지 못해서 실패를 한다.	1	2	3	4
6	나는 마음이 놓인다.	1	2	3	4
7	나는 차분하고 침착하다.	1	2	3	4
8	나는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이 밀어닥쳐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	1	2	3	4
9	나는 하찮은 일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한다.	1	2	3	4
10	나는 행복하다.	1	2	3	4
11	나는 무슨 일이건 힘들게 생각한다.	1	2	3	4
12	나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1	2	3	4
13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1	2	3	4
14	나는 위기나 어려움을 피하려고 애쓴다.	1	2	3	4
15	나는 울적하다.	1	2	3	4
16	나는 만족스럽다.	1	2	3	4
17	사소한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	1	2	3	4
18	나는 실망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지워 보일 수가 없다.	1	2	3	4
19	나는 착실한 사람이다.	1	2	3	4
20	나는 요즘 걱정거리나 관심거리를 생각만 하면 긴장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른다.	1	2	3	4

<상대불안척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마음이 차분하다.	1	2	3	4
2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1	2	3	4
3	나는 긴장되어 있다.	1	2	3	4
4	나는 후회스럽고 서운하다.	1	2	3	4
5	나는 마음이 편하다.	1	2	3	4
6	나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1	2	3	4
7	나는 앞으로 불행이 있을까봐 걱정하고 있다.	1	2	3	4
8	나는 마음이 놓인다.	1	2	3	4
9	나는 불안하다.	1	2	3	4
10	나는 편안하게 느낀다.	1	2	3	4
11	나는 자신감이 있다.	1	2	3	4
12	나는 짜증스럽다.	1	2	3	4
13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1	2	3	4
14	나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다.	1	2	3	4
15	내 마음은 긴장이 풀려 푸근하다.	1	2	3	4
16	나는 만족스럽다.	1	2	3	4
17	나는 걱정하고 있다.	1	2	3	4
18	나는 흥분되어 어쩔 줄 모르겠다.	1	2	3	4
19	나는 즐겁다.	1	2	3	4
20	나는 기분이 좋다.	1	2	3	4

<양육 행동 척도>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요구를 무시하시는 편이십니까?					
3	어머니께서는 자녀들이 놀고 있을 때 허물없이 끼여 들어 자녀들이 노는 방식대로 놀아주십니까?					
4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행동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칭찬도 하시는 편이십니까?					
5	자녀가 버릇없이 굴 때 어머니께서는 벌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으십니까?					
6	어머니께서는 자녀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7	자녀의 행동이 바르게 자라려면 부모를 어렵게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	어머니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녀 혼자 무엇을 스스로 하겠다고 할 때 그냥 내버려두시겠습니까?					
9	어머니께서는 자녀 스스로 혼자 행동하는 것을 관대하게 봐주는 편이십니까?					
10	집이나 어머니를 떠나서 자녀가 혼자 행동하는 것을 관대하게 봐주는 편이십니까?					
11	어머니께서는 자녀로 인해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많으십니까?					
12	자녀가 속을 썩이는 행동을 보일 때 어머니께서는 참으려 하다가 와락 성을 내거나 큰소리를 치는 때가 있으십니까?					
13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행동 및 태도에 고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14	어머니께서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겨워하시는 편이십니까?					
15	어머니께서는 자녀양육이 즐거울 때보다는 부담스러울 때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16	어머니께서 자녀들이 무언가 해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강하게 갖고 계십니까?					

17	어머니께서는 자녀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십니까?					
18	어머니께서는 경제, 정치, 사회문제 및 여러 방면에 대해 폭 넓은 흥미를 갖고 계십니까?					
19	어머니께서는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	어머니께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독서도 하고 강연회 등에 참석하여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십니까?					
21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정서적 특성이나 성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2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다른 어린이 또는 어른과 잘 사귀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3	어머니께서는 자녀들에게 “장손”, “장녀” 혹은 집안의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24	어머니께서는 자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어머니가 알고 있어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5	어머니께서는 가정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칙과 규율을 많이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6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유치원(학교) 생활에 관심을 갖고 자주 살펴보십니까?					
27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되도록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면 싶으십니까?					
28	어머니께서는 자녀에게 되도록 원대한 꿈과 포부를 갖도록 격려하여 보다 더 성공할 수 있게끔 격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9	어머니께서는 자녀에게 애정표현을 겉으로 잘하십니까?					
30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행동이나 자녀가 성취해낸 일(그림, 만들기 등)에 늘 관심을 갖는 편이십니까?					
31	어머니께서는 자녀를 슬하에 둔 것이 꼭 기쁘다고 자녀에게 말해 주십니까?					
32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보이는 흥미, 관심거리에 대해서 자녀와 이야기를 자주 하여 도움을 주십니까?					

33	어머니께서는 자녀에게 문제되는 행동이 있을 때 거리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의논하고 도움을 받으십니까?					
34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편이십니까?					
35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놀거나 공부할 때 되도록 집안에서 하도록 하는 편이십니까?					
36	어머니께서는 자녀 마음대로 하게 되면 버릇들이기가 힘들게 되기 때문에 표현이나 움직임을 엄격히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7	어머니께서는 자녀들이 사귀는 친구와 사용하는 말을 잘 보살펴서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배우지 않도록 적극 도와주시는 편이십니까?					
38	어머니께서는 자녀를 양육하면 어쩔 수 없이 근심, 걱정이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39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클 때까지 다른 사람이 좀 키워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40	어머니께서는 일을 하다가 권태롭다거나 지겹다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41	다른 사람이 어머니를 대할 때 어려워하거나 까다로운 면이 있다고 하는 편이십니까?					
42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잘못했을 경우 일부러 쌀쌀맞게 대하고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편이십니까?					
43	자녀가 속을 썩이는 행동을 못 본 체 할 수 없어 야단을 치거나 비판을 하는 편이십니까?					
44	어머니께서는 일일이 돌봐 주지 않고 자기 혼자서 놀 자리를 찾아서 놀게 하는 편이십니까?					
45	어머니께서는 자녀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자유를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46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할 수 있다면 힘든 일도 안쓰럽지만 혼자서 하라고 하십니까?					
47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끄집어내지 않는 편이십니까?					
48	어머니께서는 사물에 대해 판단을 잘하고 이해도 빠른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귀하(어머니)에 대한 간단한 정보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1. 귀하의 나이? ()
2. 귀하의 직업은? ()
① 주부 ② 회사원 ③ 공무원 ④ 전문직 ⑤ 자영업 ⑥ 판매 및 서비스직
⑥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무, 부업) ⑦ 군인 ⑧ 기타 ()
3.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고등학교 졸업 ② 전문대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⑤ 기타 ()
4. 귀하는 형제, 자매 중 몇 째입니까? ()
① 첫째 ② 중간 ③ 막내 ④ 외동 ⑤ 기타() ⑥ 없음
5. 귀하가 사는 곳은? () *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예, 성북구, 인천광역시)
① 서울(구) ② 경기도 (시) ③ () 광역시
④ 강원도 ⑤ 충청도 ⑥ 경상도 ⑦ 전라도 ⑧ 제주도
⑨ 기타()
6. 현재 가정의 평균 소득은? ()
① 100만원미만 ② 100~200만원 ③ 200~300만원
④ 300~400만원 ⑤ 400만원이상
7. 현재 결혼 상태는? ()
① 동거 ② 별거 ③ 이혼 ④ 주말 부부 ⑤ 배우자 사망 ⑥ 재혼
8. 수입은? () ① 맞벌이 ② 외벌이
9. 가족의 화목 정도는? ()
① 매우 화목 ② 화목 ③ 화목하지 않음 ④ 매우 화목하지 않음
10. 부부사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① 매우 친밀함 ② 친밀함 ③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음
④ 매우 사이가 좋지 않음

11. 자녀 양육에 관해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

- ① 예 ② 아니요

12. 자녀가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았다면 어떤 진단을 받았나요?

(중복응답 가능함)

- 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② 우울증 ③ 불안증 ④ 사회성 문제
⑤ 언어 발달 지연 ⑥ 지적 장애 ⑦ 자폐성 장애 ⑧ 부모-자녀 관계 문제
⑨ 발달 지연 ⑩ 기타 () ⑪ 없음

* 빠진 문항이 있나 다시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록 4. 양육불안 척도의 잠재 변인과 측정변인의 추정계수

요인	문항	추정치	S.E.	고유 변량	P-Value	잔차	표준화된 추정치
부모 역할로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pa5	1	0	999	999	0.735	0.652
	pa21	1.019	0.08	12.676	0	0.466	0.74
	pa32	1.153	0.086	13.356	0	0.442	0.787
	pa43	1.033	0.08	12.847	0	0.439	0.754
	pa45	1.016	0.082	12.378	0	0.537	0.715
	pa69	1.015	0.079	12.926	0	0.421	0.756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	pa23	1	0	999	999	0.446	0.704
	pa24	1.085	0.087	12.477	0	0.504	0.711
	pa50	0.96	0.072	13.416	0	0.311	0.752
	pa57	0.902	0.071	12.693	0	0.354	0.708
	pa68	0.815	0.08	10.127	0	0.601	0.571
자녀에 대한 염려	pa11	1	0	999	999	0.565	0.616
	pa13	1.205	0.109	11.075	0	0.613	0.671
	pa35	1.198	0.105	11.359	0	0.513	0.701
	pa48	1.029	0.097	10.557	0	0.499	0.65
	pa56	1.055	0.101	10.395	0	0.634	0.614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	pa16	1	0	999	999	0.554	0.467
	pa29	1.655	0.194	8.54	0	0.343	0.744
	pa37	1.299	0.157	8.295	0	0.344	0.657
	pa47	1.611	0.197	8.178	0	0.526	0.658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pa7	1	0	999	999	0.537	0.553
	pa17	0.965	0.118	8.196	0	0.602	0.517
	pa19	0.997	0.133	7.491	0	0.77	0.484
	pa55	1.365	0.143	9.546	0	0.413	0.719
	pa62	1.259	0.139	9.088	0	0.574	0.629
	pa70	1.347	0.147	9.152	0	0.534	0.668

부록 5. 양육불안 척도 모형 요인 구조

